

[2018년 A형] 2018년 중등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전공국어 적중리스트

	2018년 기출문제 출제영역 및 출제요소	정동해 2017년 출제 문제 모음												
1번	[국어교육론] - 화법 화법태도-말하기불안	- 7~8월 문제풀이반 국어교육론 3주차 [화법] 13번 <적중포인트> ⇒ 말하기불안의 원인에 대한 내용												
	1. 다음은 ‘말하기 불안’에 대처하는 방법을 지도하기 위한 교사 협의회 내용의 일부이다. 괄호 안의 ㉠~㉣에 해당하는 내용을 순서대로 쓰시오. [2점] 김 교사: 발표 수업에서 말하기 불안을 느끼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오늘은 말하기 불안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교사: 학생들의 말하기 불안과 발표 수행에 대한 연구를 찾아보았더니 <표>와 같이 학생들을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더군요. <표> 말하기 불안과 발표 수행 수준에 따른 학생 유형 <table><tr><th>발표 수행 수준</th><th>미흡</th><th>우수</th></tr><tr><th>말하기 불안 수준</th><td></td><td></td></tr><tr><td>낮음</td><td>A유형</td><td>B유형</td></tr><tr><td>높음</td><td>C유형</td><td>D유형</td></tr></table> 박 교사: 흥미롭네요. 각 유형별로 말하기 불안에 대처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이 교사: 네, (㉠) 유형의 경우는 말하기 불안 수준이 높지 않으므로 현재의 발표 수행 수준을 유지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 유형에 속하는 학생들은 말하기 불안 수준이 높지 않으나 화법 기능(技能)이 부족하므로 말하기 행동에 중점을 둔 접근이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비해 (㉢) 유형의 경우, 말하기 행동에 중점을 둔 접근보다는 말하기 불안을 유발하는 부정적 인식을 극복하게 하거나 말하기 불안 감정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효과적이겠죠. (㉣) 유형에 속하는 학생들은 이러한 행동적, 인지적, 감정적 접근 방법을 다면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 교사: C유형 학생들에게 가장 많은 관심이 필요한 것 같군요. 이 학생들을 위한 지도 방법을 추천해 주시겠어요? 이 교사: 말하기 불안을 유발하는 부정적 인식을 극복하게 하는 게 우선 중요하겠죠. 그리고 말하기 불안 감정 자체를 완화하는 훈련도 도움이 되는데, 널리 알려진 방법 중 한 가지는 (㉤)입니다. 심부 근육의 긴장을 이완하게 하고, 특정한 말하기 상황을 떠올리면서 긴장 이완 훈련을 하다가, 점차적으로 긴장의 강도가 높은 말하기 상황을 떠올리면서 긴장 이완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말하기 불안 감정을 완화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실제 상황 노출법’이 있습니다. ... (하략) ...	발표 수행 수준	미흡	우수	말하기 불안 수준			낮음	A유형	B유형	높음	C유형	D유형	13. 다음은 ‘의사소통 불안’을 주제로 한 수업 장면이다. 괄호 안의 ㉠, ㉡에 해당하는 말을 순서대로 쓰시오. [2점] 의사소통 불안에 대한 인지적 문제에 대한 대처는 불안과 관련된 부정적인 인식을 긍정적인 인식으로 전환할 때 효과적입니다. 먼저 화면에 준비한 학생의 대화를 같이 봅시다. 현성: 지난 번 봉사 활동 때 우리 반이 한 일을 발표해야 하는데, 걱정이야. 준우: 왜? 봉사 활동이 잘되지 않았어? 현성: 아니, 그건 아닌데....., 봉사 활동도 보람 있었고, 사진 같은 자료도 많아서 발표할 내용은 충분해. 준우: 잘되었네. 그런데 뭐가 문제라는 거야? 현성: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을 제대로 못하는 성격이란 말이야. 준우: 그럼 다른 친구가 발표하게 하지 그래? 현성: 그게, 친구들이 이번 기회에 연습과 준비를 충분히 해서 그런 불안을 떨쳐 버리라고 일부러 나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라서..... 준우: 그래, 친구들 말이 맞는 것 같아. 교실에서 반 친구들에게 발표하는 거니까 불안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마음 편하게 준비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현성: (한숨을 쉬며) 같이 준비한 친구들에게 미안한 마음 들지 않을 정도로만 하면 좋겠다. 위 대화를 보니, 현성은 자신의 성격을 소극적인 성격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자신의 소극적인 성격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죠. 즉, 발표할 자료도 많고, 익숙한 장소인 교실에서 반 친구들에게 발표를 하는 것임에도 같이 준비한 친구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지 않을 정도로만 하면 좋겠다는 말로 소극적인 성격을 드러내고 있어요. 이와 같은 의사소통 불안의 대처 방안으로 ‘자신’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나는 내일 발표를 망칠 거야. 나는 여러 사람 앞에서 말을 잘 못해. 내가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지루해하고 싫어할 거야.’등과 같은 자신에 대한 (㉠)와/과, ‘내일 발표는 완벽해야 해. 청중에게 감동을 주지 못한 연설은 실패한 거야. 절대 실수를 용납할 수 없어.’와 같은 (㉡)을/를 바꾸어야 합니다. 스스로를 과소평가하지 말고, 강박감을 버리고, 유창성보다 자신의 능력, 진실함, 정열을 보여 주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작은 실수에 집착하면 말하기 불안이 커질 수 있으므로, 화자의 열정과 진실성을 보이기 위해 노력해야 하죠.
발표 수행 수준	미흡	우수												
말하기 불안 수준														
낮음	A유형	B유형												
높음	C유형	D유형												

	2018년 기출문제 출제영역 및 출제요소	정동해 2017년 출제 문제 모음			
2번	[국어교육론] - 독서 독서의 방법	- 9~11월 실전모의고사반 [6회 모의고사-A형-해설지 5쪽] <적중포인트> ⇒ 창의(조)적 독해와 관련하여 ‘단계4’의 활동요소에 ‘재구성’언급			
	2. 박 교사는 학생들의 읽기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수업하였 다. 괄호 안의 ㉠, ㉡에 해당하는 말을 순서대로 쓰되, 각각 한 단어로 쓰시오. [2점] 글을 읽을 때 우리는 나름의 의미를 구성하게 되지요. 오늘은 이 점에 대해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다음 글을 읽어 보세요. 오늘날 한국은 개인주의 시대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는 갈수록 개인주의가 심화될 것이다. 이러한 시대에 홀로 제 운명을 감당하며 살 수는 없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처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돈을 확보하는 데 관심을 쏟기도 한 다. 한편으로는 지역 공동체나 국가가 제공하는 보장 제도가 점차 탄핵되고 있으니 미래에 개인이 감당해야 할 불안이 줄어들 것으로 낙관하는 사람들도 있다. 인간은 땀만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공동 연대가 꼭 개 개인의 생존을 위해서만 요구되는 것도 아니다. 삶의 가치를 확인하 기 위해서라도 개체라는 생물학적 단위를 넘어설 필요가 있다. 가족 은 사회적·경제적 책임을 함께 나누고 실질적인 도움과 정신적인 위안을 주고받는다. 지역 공동체, 국가도 이 역할을 할 수 있지만 혈 족만큼 기대할 수 없다. 개인주의 시대에 진정으로 기댈 수 있는 공 동체는 가족밖에 없다. 다들 읽었나요? 같은 글을 읽었지만 각자 구성한 의미는 다를 거예요. 선생님이 이 글을 읽고 의미를 구성한 예를 준비해 봤어 요. 예 1 필자는 가족을 혈족으로만 생각하는 한계가 있다. 혈족은 대부분 개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맺어지기 때문에 수동적인 면이 있다. 공동 연대는 상대에게 기대기 전에 내가 나서서 기꺼이 책임을 지는 적극 성을 요한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 연대의 기반을 가족보다는 가족 너머의 애정 공동체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예 2 우리가 종국에 돌아가 기댈 공동체는 가족이다. 가 족은 가장 안전한 울타리이다. 울타리는 나를 감싸 주기도 하지만 그 밖을 신경 쓰지 않게 해 주기도 한다. 그래서 울타리 안에 있으면 울타리 밖의 외 부 세계의 굴레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자유가 생긴 다. 우리가 가족에게로 돌아가 기대는 것은 사회적·경제적 책임을 나누고 도움과 위안을 주고받는 일이면서 외부 세계의 굴레로부터 벗어나 자유를 얻는 일이 될 것이다. 예 1에서는 개인주의 시대에 공동 연대와 책임의 문제를 가 족이 아니라 가족 너머의 애정 공동체로 접근해 가자는 대안을 밝 히고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필자의 관점을 비판하며 읽은 것이 바 탕이 되었지요. 예 2에도 새로운 의미 구성이 나타나 있어요. 가족이 개인의 자유를 만들어 준다는 거죠. 이 경우는 글의 의미를 수용하면서도 그 의미를 (㉠)함으로써 새로운 의미 구성을 하 고 있어요. 예 1, 예 2와 같이 글을 읽고 필자의 생각에 대하 여 대안을 제시하거나 새로운 의미를 구성하는 읽기를 ‘(㉡) 읽 기’라고 합니다.	[참고] 다음은 ‘창의적 독해 활동’의 단계별 활동을 참고하여 교사의 설명 내 용을 완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단계별 활동.4’에 들어갈 활동 요소를 쓰시 오. [2점] 교사설명 창의적 독해를 하려면 유연한 사고를 바탕으로 자신 의 독서 목적과 상황을 고려하며 글을 읽어야 합니다. 또한 글 의 화제, 주제, 관점 등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하죠. 즉, 창의적인 독해란 무(無)에서 유(有)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 니라 글의 내용을 새로운 시각에서 재구성하는 과정인 것입니 다. 아래 제시된 단계별 활동을 보면, 먼저 화제, 주제, 관점 파악하기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즉, 이는 글의 내용을 재구성하 기 위해서는 보통 화제 및 주제를 찾는 (㉠) 독해 능력 과 글의 행간을 읽을 수 있는 (㉡) 독해 능력이 필요하 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은, ‘새로운 관점으로 내용을 재조직하기’ 활동으로 글의 내용을 그래프, 도표, 그림 등의 시각 자료로 새 략게 재구성하거나, 유추를 통해 자신의 배경지식과 글의 내용 을 유기적으로 연결함으로써 새로운 관점에서 내용을 재조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독해의 과정에서 내용을 단순히 수용하 는 것이 아니라, 여러 글에 나타난 주제, 관점 등에 대하여 새 로운 측면에서 (㉢)으로 접근해 봄으로써 자신만의 독창 적인 생각을 구성하도록 해야 하죠. 아이들을 태어나자마자 동굴의 어두운 곳으로 데려간다면 그 아 이들이 접하는 유일한 세상은 어두운 동굴일 수밖에 없다. 만일 그 아이들을 쇠사슬로 묶은 뒤 동굴 벽면만 보게 한다면 그들은 어두 운 동굴 벽면에 비친 것들만 관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묶여 있 는 아이들과 햇빛 사이로 마차가 지나간다면 그 마차의 그림자가 동굴의 벽에 비치게 된다. 이때 아이들은 동굴의 벽면만 바라볼 수 있으므로 마차의 모습을 단순히 평면적인 것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략)..... - 플라톤, 『국가』 제 7장 ↓ (중략)..... <table><tr><td>단계 .4</td><td>(㉢)</td><td>앞에 제시된 플라톤의 글을 읽으며 ‘아이들을 태어나자마자 ‘누가’, ‘왜’ 동굴의 어두운 곳으로 데려갔을까?’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이 의문에서 시작하여 ‘인간을 지배하고자 하는 기계들의 욕망이 가 상 세계, 즉 ‘동굴’을 만들었으며 인간을 가상 세계 속 인형으로 전 락시킨다.’고 설정하여 만든 영화가 ‘매트릭스’라는 가정을 해보자.</td></tr></table>	단계 .4	(㉢)	앞에 제시된 플라톤의 글을 읽으며 ‘아이들을 태어나자마자 ‘누가’, ‘왜’ 동굴의 어두운 곳으로 데려갔을까?’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이 의문에서 시작하여 ‘인간을 지배하고자 하는 기계들의 욕망이 가 상 세계, 즉 ‘동굴’을 만들었으며 인간을 가상 세계 속 인형으로 전 락시킨다.’고 설정하여 만든 영화가 ‘매트릭스’라는 가정을 해보자.
단계 .4	(㉢)	앞에 제시된 플라톤의 글을 읽으며 ‘아이들을 태어나자마자 ‘누가’, ‘왜’ 동굴의 어두운 곳으로 데려갔을까?’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이 의문에서 시작하여 ‘인간을 지배하고자 하는 기계들의 욕망이 가 상 세계, 즉 ‘동굴’을 만들었으며 인간을 가상 세계 속 인형으로 전 락시킨다.’고 설정하여 만든 영화가 ‘매트릭스’라는 가정을 해보자.			

	2018년 기출문제 출제영역 및 출제요소	정동해 2017년 출제 문제 모음
3번	[국어교육론] -작문교수·학습이론 인지주의 작문이론	- 7~8월 문제풀이반 국어교육론 6주차 [작문] 해설지 18쪽 3번★ <적중포인트>⇒ 인지주의 작문이론 (문제해결 및 과정에 주목하여) 출제
	3. 다음은 ‘쓰기 지도’를 주제로 하여 진행된 교사 협의회 내용의 일부이다. 괄호 안의 ㉠, ㉡ 각각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말을 순서대로 쓰시오. [2점] 박 교사: 얼마 전에 “여정, 전문, 감상이 드러나는 기행문을 쓸 수 있다.”라는 학습 목표로 글쓰기 수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글쓰기를 많이 어려워하더라고요. 김 교사: 학생들이 글쓰기를 어려워하는 데는 여러 원인이 있어요. 인지주의 작문 이론가들에 따르면 필자는 글을 쓰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히는데, 능숙한 필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인 (㉠)을/를 적절하게 사용하지만, 미숙한 필자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글을 쓰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요. 그래서 미숙한 필자에게는 쓰기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을/를 익히게 하고, 그것을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이때 쓰기 과정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지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박 교사: 그래서 쓰기를 문제 해결 과정이라고 하는군요. 그럼 내용 조직하기 단계에서 우리 학생들이 활용할 만한 것이 있을까요? 김 교사: 내용 생성하기를 마친 후 조직하기 단계에서는 쓸 내용을 체계화하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흔히 글의 뼈대를 만드는 일이라고 하는데, (㉠) 쓰기를 하면 글의 전개 방향과 전체 내용을 한눈에 알 수 있어서 글을 일목요연하게 쓰는 데 도움이 되지요. 다만 학생들은 한 번 (㉡)을/를 쓴 후에는 그것을 확정된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쓰기 과정에서 얼마든지 수정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할 필요가 있어요.	3. 다음은 한 대학생의 글쓰기 과정을 통해 도출한 글쓰기 특성이 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쓰시오. [2점] (㉠) 작문 이론에서는 흔히 작문을 (㉡)(이)라고 표현한다.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문제 전체를 한꺼번에 해결하기 보다는 작은 하위 문제로 쪼개어 하나씩 해결해나가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다. 주어진 작문 과제를 문제로 본다면, 하위 문제로 쪼개어 하나씩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래야 인지적인 부담이 덜하기 때문이다. 대학생 A는 ‘디지털 시대의 교육’이라는 익숙하지 않은 주제로 글을 써야 한다. 글을 완성하기까지 A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우선 A는 디지털 시대의 의미와 교육적인 변화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가 없으므로 배경 지식이 부족하다. 또한 구체적으로 어떤 순서로 내용을 전개해야 할지도 잘 모른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선 관련 정보를 모으고, 전개할 순서를 조직하고, 초고를 쓰고, 초고를 다시 읽으며 고쳐쓰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렇게 과정을 거치며 하나씩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글을 쓰는 데 따르는 인지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결과적으로 이를 통해 좋은 글을 쓸 수 있다는 것이 (㉠) 작문 이론의 입장이다.

	2018년 기출문제 출제영역 및 출제요소	정동해 2017년 출제 문제 모음																
4번	[문법] - 중세국어 형태론 - 품사통용	- 7~8월 문제풀이반 문법 4주차 [형태론] 해설지 11쪽 2번문제 <적중포인트> ⇒ 품사통용과 관련하여 현대국어에서 ‘아니’의 품사통용 제시 - 7~8월 문제풀이반 문법 8주차 [중세국어] 해설지 45쪽 <적중포인트> ⇒ 명부류에 대한 ‘아니’의 품사통용 제시																
	4. 중세 국어 자료 ㉠~㉡에 쓰인 ‘아니’의 품사 명칭을 쓰시오. [2점] ㉠ 불휘 기픈 남곤 바르매 <u>아니</u> 뵈썩 ㉡ 생이며 생 <u>아니</u>를 굴히느니 ㉢ 뒤 <u>아니</u> 오스븀리 ㉣ 숭가락과 숭가락 <u>아니</u>와에 나게 흐리라 <table><tr><th>자료</th><th>품사 명칭</th></tr><tr><td>㉠</td><td></td></tr><tr><td>㉡</td><td></td></tr><tr><td>㉢</td><td></td></tr><tr><td>㉣</td><td></td></tr></table>	자료	품사 명칭	㉠		㉡		㉢		㉣		2. 다음은 ‘품사 통용 현상과 사전 등재 방식의 차이’에 대한 자료이다. <보기>에 제시된 단어의 품사 통용 현상에 대해 각각 설명하고, <보기>와 아래 제시된 두 사전의 등재 방식과 연관 지어 빈칸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2점] <보기> 가. 나도 참을 <u>만큼</u> 참았다. / 나도 그 사람<u>만큼</u> 할 수 있다. 나. 오늘은 바람이 <u>아니</u> 분다. / <u>아니</u>,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다. 올해는 꽃이 <u>늦게</u> 핀다. / 그는 약속시간에 항상 <u>늦는다</u>. 라. 그 아이는 <u>열</u>을 배우면 <u>백</u>을 안다. / <u>열</u> 사람이 <u>백</u> 말을 한다. ○ (가)의 ‘만큼’은 (㉠), (나)의 ‘아니’는 (㉡), (다)의 ‘밝다’는 형용사와 동사, (라)의 ‘열, 백’은 수사와 관형사로 통용된다. ○ 사전류에서도 (㉡)은/는 동일한 어원에서 의미가 분화된 다의어로 처리하여 (㉢)사전과 같은 방식으로 제시한다. 반면, (㉣)은/는 어원적으로 상관성을 찾기 어려운 동음이의어로 처리하고 (㉠)사전과 같은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다. 25. 다음은 ‘부정표현’의 종류와 특성에 대한 자료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에 쓰시오. [2점] (1) 가. 불휘 기픈 남곤 바르매 <u>아니</u> 뵈썩 <용가 2장> 나. 모춤내 제 브들 시러 <u>퍼디</u> <u>몬홀</u> 노미 하니라<훈연 2> (2) 가. 모스맷 뵈 흐마 <u>업스시니</u> <월석 10:9> 나. 다시 眞實스 곳 7르치사말 <u>모르며</u> <능엄 1:19> (3) 가. 世尊이 <u>아니</u> 오실씨 <월석 21:188> 나. 妙法이 둘 아니며 세 <u>아닐씨</u> <석상 13:48> 다. 이 생이며 생 <u>아니</u>를 굴히느니 <법화 5:30> <table><tr><td>○</td><td>(1)은 통사적 부정의 예이다. (1가)는 (㉠부정 부사-[0.5점]) ‘아니’에 의해 부정문이 이루어졌고 (1나)는 부정의 보조 용언 ‘몬홀다’에 의해 부정문이 이루어졌다.</td></tr><tr><td>○</td><td>(2)는 어휘적 부정의 예이다. (2가)에는 ‘잇다/이시다’의 부정어인 ‘없다’가 쓰였고 (2나)에는 (㉡‘알다’-[0.5점])의 부정어인 (㉢‘모르다’-[0.5점])가 쓰였다.</td></tr><tr><td>○</td><td>(3가)는 ‘아니’가 (㉠부정 부사)로 쓰여 단형 부정을 이룬 예이다. 중세국어에는 ‘아니’의 줄임말 형태인 ‘안’이 쓰이지 않았다. (3나)는 ‘아니다’가 체언 부정의 형용사로 쓰인 예이다. (3다)는 ‘이 삶이며 삶 아닌 것을 가리니’ 정도의 뜻으로 ‘아니’가 (㉣명사([허용]체언)-[0.5점])(으)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즉, 15세기 국어에서 ‘아니’는 현대 한국어의 ‘아니’와 달리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명사)로도 쓰였다.</td></tr></table>	○	(1)은 통사적 부정의 예이다. (1가)는 (㉠부정 부사-[0.5점]) ‘아니’에 의해 부정문이 이루어졌고 (1나)는 부정의 보조 용언 ‘몬홀다’에 의해 부정문이 이루어졌다.	○	(2)는 어휘적 부정의 예이다. (2가)에는 ‘잇다/이시다’의 부정어인 ‘없다’가 쓰였고 (2나)에는 (㉡‘알다’-[0.5점])의 부정어인 (㉢‘모르다’-[0.5점])가 쓰였다.	○	(3가)는 ‘아니’가 (㉠부정 부사)로 쓰여 단형 부정을 이룬 예이다. 중세국어에는 ‘아니’의 줄임말 형태인 ‘안’이 쓰이지 않았다. (3나)는 ‘아니다’가 체언 부정의 형용사로 쓰인 예이다. (3다)는 ‘이 삶이며 삶 아닌 것을 가리니’ 정도의 뜻으로 ‘아니’가 (㉣명사([허용]체언)-[0.5점])(으)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즉, 15세기 국어에서 ‘아니’는 현대 한국어의 ‘아니’와 달리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명사)로도 쓰였다.
자료	품사 명칭																	
㉠																		
㉡																		
㉢																		
㉣																		
○	(1)은 통사적 부정의 예이다. (1가)는 (㉠부정 부사-[0.5점]) ‘아니’에 의해 부정문이 이루어졌고 (1나)는 부정의 보조 용언 ‘몬홀다’에 의해 부정문이 이루어졌다.																	
○	(2)는 어휘적 부정의 예이다. (2가)에는 ‘잇다/이시다’의 부정어인 ‘없다’가 쓰였고 (2나)에는 (㉡‘알다’-[0.5점])의 부정어인 (㉢‘모르다’-[0.5점])가 쓰였다.																	
○	(3가)는 ‘아니’가 (㉠부정 부사)로 쓰여 단형 부정을 이룬 예이다. 중세국어에는 ‘아니’의 줄임말 형태인 ‘안’이 쓰이지 않았다. (3나)는 ‘아니다’가 체언 부정의 형용사로 쓰인 예이다. (3다)는 ‘이 삶이며 삶 아닌 것을 가리니’ 정도의 뜻으로 ‘아니’가 (㉣명사([허용]체언)-[0.5점])(으)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즉, 15세기 국어에서 ‘아니’는 현대 한국어의 ‘아니’와 달리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명사)로도 쓰였다.																	

	2018년 기출문제 출제영역 및 출제요소	정동해 2017년 출제 문제 모음
5번	[문법] - 현대문법 통사론 - 시간동작표현	- 7~8월 문제풀이반 문법 4주차 [형태론] 13번 <적중포인트> ⇒ ‘-아 있다’/‘-고 있다’의 용법
	5. 다음은 동작상에 대한 교사의 설명 중 일부이다. 괄호 안의 ㉠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말과 ㉡에 해당하는 말을 순서대로 쓰시오. [2점] 오늘은 국어의 동작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동생이 춤을 추었다. (2) 동생이 밥을 먹고 있다. (3) 동생이 의자에 앉아 있다. (1)에서는 ‘-았-’에 의해 동작이 끝났다는 의미를, (2)에서는 ‘-고 있-’에 의해 동작이 계속되고 있다는 의미를 파악할 수 있지요? (1)에는 (㉠)이/가, (2)에는 (㉡)이/가 나타나 있습니다. (3)도 (㉠)(이)라고 할 수 있는데, (1)과 달리 끝난 동작의 결과가 지속된다는 의미가 드러나 있습니다.	13. 보조용언 ‘있다’는 ‘-아’ 뒤에 오기도 하고 ‘-고’ 뒤에 오기도 하는데, 이 중 어느 어미 뒤에 쓰이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 <교수·학습 자료> (1)과 (2)에 제시된 ‘있다’의 의미에 대한 설명을 완성하시오. [2점] (1) a. 전신주가 넘어져 있다. b. 전신주가 넘어지고 있다. (2) a. 꽃이 피 있다. b. 꽃이 피고 있다. ○ (1)과 (2)의 ‘a’에 쓰인 ‘-아 있다’는 본동사가 일으킨 결과가 (㉠ ‘지속’[허용]: 완결지속, 완료지속)[1점]되고 있음을 나타내 준다. 전신주가 ‘넘어진’ 상태, 꽃이 ‘핀’ 상태가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 (1)과 (2)의 ‘b’에 쓰인 ‘-고 있다’는 그 사태가 (㉡ ‘진행’ 중임)[1점]을 나타내 준다. 전신주가 넘어지기 시작하여 아직 다 넘어지지 않은, 그 중간 단계를 보여 주는 것이다.

	2018년 기출문제 출제영역 및 출제요소	정동해 2017년 출제 문제 모음																
6번	[문학] - 고전운문 작품론 - 도술가	- 7~8월 문제풀이반 문학 [1주차 고전운문 13쪽 8번] <적중 포인트!> 종교(불교)적 태도 - 7~8월 문제풀이반 문학 [1주차 고전운문 3쪽 3번] <적중 포인트!> 작품의 산화공덕의 행위, 향가주술성																
	6. 다음을 읽고 (나)의 괄호 안의 ㉠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을 쓰고, ㉡에 해당하는 것을 (가)에서 찾아 쓰시오. [2점] (가) 경덕왕 19년 경자 4월 초하룻날 두 해의 괴변이 10여 일간 없어지지 않았다. 일관(日官)이 아뢰기를, “인연 있는 중을 청하여 산화공덕을 드리면 재앙을 물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왕은 조원전에 단을 깨끗이 만들고 청양루에 행차하여 인연 있는 스님을 기다렸다. 그때 마침 월명사가 발독을 건다가 마침 남쪽 길로 지나가고 있었다. 왕은 사람을 시켜 그를 불러와 단을 열고 계(啓)를 짓게 하였다. 월명사는 왕께 아뢰기를, “저는 국선의 무리에 속해 있으므로 오직 향가만 알고 범패 소리에는 익숙하지 못합니다.”라고 하였다. 왕은 “이미 인연 있는 중으로 정하였으니 향가를 지어도 좋다.”라고 하였다. 월명사는 이에 도술가를 지어 불렀다. 그 가사는 다음과 같다. 오늘 이에 ‘散花’를 불러 뿌리온 꽃아, 너는, 곧은 마음의 命을 부리웁기에, 彌勒座主를 모셔라! ... (중략) ... 이 일이 있고 나서 곧 두 해의 괴변이 사라졌다. -일연, 『삼국유사』 (나) 『도술가』의 창작 배경 및 과정, 기능 및 효과에 주목할 때, 산화공덕의 의례가 (㉠)와/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종교로 보면 (㉡)적 성격을, 이 노래로 ㉢재앙이 소멸되었기 때문에 효과로 보면 주술적 성격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3. 김 교사는 상고시대 시가의 성격을 이해하는 수업을 진행하고자 한다. 다음을 읽고, (가)~(다)의 공통적인 성격을 ㉠에 쓰고, 표현 방식에 대한 교사의 설명 중 괄호 안의 ㉡, ㉢에 해당하는 내용을 배경설화를 근거로 하여 쓰시오. [2점] (가) <table><tr><td>龜何龜何</td><td>거북아, 거북아.</td></tr><tr><td>首其現也</td><td>머리를 내어라.</td></tr><tr><td>若不現也</td><td>내어놓지 않으면,</td></tr><tr><td>燔灼而喫也</td><td>구워서 먹으리.</td></tr></table> - 구간 등, 『구지가』 (나) <table><tr><td>今日此矣散花唱良</td><td>오늘 이에 散花(산화) 불러</td></tr><tr><td>巴寶白乎隱花良汝隱</td><td>색솔본 고자 너는</td></tr><tr><td>直等隱心音矣命叱使以惡只</td><td>고든 믹스릭 命(명)스 브리옵디</td></tr><tr><td>彌勒座主陪立羅良</td><td>彌勒座主(미륵 좌주) 뵈셔봐.</td></tr></table> - 월명사, 『도술가』 (다) 선화 공주(善花公主)니몬 늬 그스지 얼어 두고 맛등바옴 바딕 물 안고 가다. - 서동, 『서동요』 <보 기> (가)~(다)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성격은 (㉠)(이)다. (가)는 왕의 강림을 기원하기 위해 (㉡)와/과 위협의 표현 방식을 사용하였고, (나)는 나라의 변괴를 물리치기 위해 (㉢)의 표현 방식을 사용하였다. 한편 (다)는 선화 공주와의 혼인하고 싶은 소망을 이루기 위해 (㉣)의 표현 방식과 미래에 일어날 일을 현재의 일로 규정하는 표현 방식을 사용하였다.	龜何龜何	거북아, 거북아.	首其現也	머리를 내어라.	若不現也	내어놓지 않으면,	燔灼而喫也	구워서 먹으리.	今日此矣散花唱良	오늘 이에 散花(산화) 불러	巴寶白乎隱花良汝隱	색솔본 고자 너는	直等隱心音矣命叱使以惡只	고든 믹스릭 命(명)스 브리옵디	彌勒座主陪立羅良	彌勒座主(미륵 좌주) 뵈셔봐.
龜何龜何	거북아, 거북아.																	
首其現也	머리를 내어라.																	
若不現也	내어놓지 않으면,																	
燔灼而喫也	구워서 먹으리.																	
今日此矣散花唱良	오늘 이에 散花(산화) 불러																	
巴寶白乎隱花良汝隱	색솔본 고자 너는																	
直等隱心音矣命叱使以惡只	고든 믹스릭 命(명)스 브리옵디																	
彌勒座主陪立羅良	彌勒座主(미륵 좌주) 뵈셔봐.																	

	2018년 기출문제 출제영역 및 출제요소	정동해 2017년 출제 문제 모음
7번	[문학] - 문학교육론 문학읽기의 관점	- 9~11월 실전모의고사반 [5회 모의고사-B형-논술형] ★★ <적중포인트> ⇒ 작성방법으로 문학 작품을 보는 4가지 관점에 대하여 묻음
	7. (가)는 한 학생이 시를 읽고 발표한 내용이고, (나)는 이에 대한 교사의 반응이다. (가)에 적용된 문학 읽기의 관점과, (나)의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쓰시오. [2점] (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는 안도현 시인의 『너에게 묻는다』입니다. 먼저 시를 읽어 보겠습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시가 정말 짧은데 저는 이 시를 읽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저한테 하는 말같이 느껴졌거든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연탄처럼 뜨겁고, 헌신적이고, 열정적이었던 적이 있었는지 스스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 재호가 『너에게 묻는다』를 읽으면서 참 소중한 경험을 했네요. 그러면 재호가 이렇게 감동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우선 시의 제목에서부터 재호는 이 시가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것처럼 느꼈나 봅니다. 1행의 명령문도, 그리고 2~3행의 의문문도 그런 느낌에 한몫한 것 같아요. 명령문과 의문문을 통해 이 시는 독자들을 시 속으로 끌어들이는 시의 발화 상황 내에서 ()(으)로 참여시키고 있거든요. ... (하략) ...	8. 다음은 “다양한 관점과 방법으로 작품을 해석할 수 있다.”라는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마련한 자료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한 편의 글로 논술하시오. [10점] (가) 윤동주, 「참회록」 (나) 윤홍길, 「아홉 켠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자료.1> 학생 1 : 이 시의 시적 화자는 ‘구리거울’을 통해 자신의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면서 반성하고 있군. 하지만 욕된 자신의 모습을 부끄럽게만 여길 뿐 고난을 극복하려는 의지는 보이지 않아. 학생 2 : 이 시가 일제강점기에 창작된 것을 고려하면 ‘그 어느 즐거운 날’은 ‘조국 광복의 날’이라고 볼 수 있군. 학생 3 : 나는 이 시를 읽고 지금 현재 나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았어. 나도 참회록을 써봐야지. 학생 4 : 이 시는 작가 윤동주가 일제의 탄압에 못 이겨 창씨개명을 한 후 고향에 머무르면서 쓴 고국에서의 마지막 작품이라고 해. 이를 통해 이 시의 ‘나’는 작가 윤동주라고 할 수 있겠어. <작성 방법> ○ M. H. Abrams의 문학 작품을 보는 네 가지 관점을 설명하고, 이를 토대로 <자료.1> 학생 활동의 결과를 분류할 것. ○ (가)를 감상한 학생들의 해석 내용인 <자료.1>에서 잘못된 반응을 한 학생을 찾고, 근거를 들어 지도 내용을 서술할 것. ○ (나)의 밑줄 친 ㉠~㉣에 나타난 ‘그(권 씨)’의 상황, 태도를 서술하고, <자료.2>의 관점에 따라 ‘그(권 씨)’의 처지와 현실과의 관계를 설명할 것.

	2018년 기출문제 출제영역 및 출제요소	정동해 2017년 출제 문제 모음
8번	[문학] - 현대소설 작품론 - 자서전들 쓰십시오(이청준)	- 9~11월 실전모의고사반 [4회 모의고사-B형-논술형] <적중포인트> ⇒ 이청준의 ‘병신과 머저리’ 제시 - 7~8월 문제풀이반 문학 8주차 [현대산문] 해설지 49쪽 서술형2 <적중포인트> ⇒ 이청준의 ‘축제’ 제시 - 문학250제 86~92쪽 (병신과 머저리, 줄, 당신들의 천국, 소문의 벽)
	8. 다음을 읽고 (나)의 괄호 안의 ㉠, ㉡에 해당하는 말을 (가)에서 찾아 각각 두 어절로 쓰시오. [2점] (가) 말들은 정치도 없었고 주인도 없었다. 지옥이 꾸며 온 수많은 회고록과 자서전들에 동원했던 말들 역시 그러했다. 그가 써 온 원고지의 말들에는 애초부터 그것을 부리고 다스릴 수 있는 진짜 주인이 있을 수 없었다. 자서전의 주인공들은 애초부터 지옥이 동원해 온 말들과는 인연이 없는 위인들이었다. 지옥이 그런 위인들을 위해 강제 봉사를 시켜 왔을 뿐이었다. 말들은 마침내 스스로의 성실성에 둔감해졌고, 스스로의 신뢰를 단념하기에 이르렀다. 말들의 슬픈 해방이었다. 지옥은 이제 꼬삿을 벗어 버린 말들의 유행을 부릴 수가 없게 되어 있었다. 피문오 씨의 일을 더 이상 계속해 나갈 수가 없었다. 지옥은 초조했다. 그러저러 사오 년 가까이나 지탱해 온 호구지책이 속절없이 무너져 나가는 판이었다. 오접 통화극으로 인한 그 혹심한 자기 모멸감에도 불구하고 몽그적몽그적 며칠이 못 가 다시 원고지 앞으로 이끌려 가 앉아야 했을 만큼 지겨운 요즘의 생활이었다. 하지만 지옥은 이제 단념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피문오 씨를 단념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한번 더 최상운 선생(충청북도 어느 산간 벽지에서 10만 평의 황무지 야산을 개간. 젓과 꿀물이 흐르는 옥토로 일궈 냈다는 그 의미의 사나이 말이다)에게나 기대를 걸어 보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최상운 선생 — 그 자기의 땅에서 자기 손으로 가꿔 얻은 감자만을 먹고 산다는 고집스런 사내에게서라면 그의 회고록의 대필자로서나마 어떤 구체적인 인간사의 알맹이를 체험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피문오 씨의 경우에서처럼 공허한 말의 유희에는 심신을 털 시달려도 될 것 같았다. 적어도 그 최상운 선생에게만은 그에게 봉사시킬 말과, 그 말들을 거짓 없이 부릴 수 있는 소박하고도 몇몇한 삶의 실체가 여물어 가고 있을 것 같았다. 최상운 선생을 생각하자 지옥은 마침내 피문오 씨의 일을 단념할 용기가 생겼다. 그는 자서전 원고지를 걸어치웠다. 그리고 기왕 결단이 선 김에 그의 일을 하지 않게 된 데 대한 작자의 양해도 구할 겸해서 솔직한 해명의 글을 쓰기 시작했다. - 이청준, 『자서전들 쓰십시오』 (나) 학생: 선생님, 이 작품에서 “말들은 정치도 없었고 주인도 없었다.”라는 부분이 잘 이해가 안돼요. 교사: 주인공은 자신이 쓴 자서전이나 회고록이 대상의 본질이나 의미를 왜곡하거나 제대로 드러내지 못한 채 (㉠) (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학생: 그래서 주인공이 피문오 씨가 의뢰한 일을 포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최상운 씨의 회고록 대필에 대해서는 기대를 걸어 보려고 하는 거죠? 교사: 주인공은 최상운 씨가 힘겨운 노력을 통해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루어 내고 있으므로 그에게서 (㉡)을/를 받을 것 같아 기대하는 것 같아요.	8. 다음을 읽고 주요 내용을 <작성 방법>에 따라 한 편의 글로 논술하시오. [10점] (가) 박지원, 「광문자전」 (나) 이청준, 「병신과 머저리」 (다) 김수영,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작성 방법> ○ (가)~(다)에서 ‘광문’, ‘형과 나’, ‘나’가 처한 상황을 파악하고 그 상황에 대한 대응 방식을 서술할 것. (단,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여 각각의 인물들이 지니는 특징을 포함할 것.) ○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을 갖추되, 결론에는 문학 작품을 통해 다양한 인물의 삶의 방식을 이해하는 활동이 갖는 교육적 의의를 서술할 것. [서술형] 2. 다음(이청준, 「축제」)을 읽고, 작품에 드러난 말하기 방식과 작품에 대한 내용을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보 기> 이 작품에서 작가는 ‘장례’를 ‘축제’라고 명명함으로써 전통적인 ‘장례’의 성격을 재조명한다. 일반적으로 ‘축제’는 일상이 정지되고 혼돈과 무질서가 드러나는 시간이다. 이 작품에서의 ‘장례’ 역시 일상이 정지되고, 모인 사람들이 망자를 애도하는 가운데 이질적인 것들이 혼재하는 ‘축제’와 같다. 이러한 ‘장례’ 속에서 등장인물들은 저마다의 묵은 감정들을 풀어냄으로써 마침내 화해와 융합에 이르게 된다. • 상현 : 망자를 애도하기 위한 ‘장례’에서 용순, 은지네, 외동댁은 저마다의 묵은 감정을 풀어내고 있군. (하략).....

정동해 2017년 출제 문제 모음	
- 6월 전국모의고사반 [B형-서술형01번]	
<적중포인트> ⇒ 반대신문식토론의 교차조사내용의 적절성	
1. 다음은 “상대측 입론과 반론의 논리적 타당성에 대해 반대 신문하며 토론한다.”를 학습목표로 수행한 학생들의 모의 토론이다. 교사의 지도 내용을 <보기>를 바탕으로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사회자 : 정보 통신의 발달로 인해 시공간을 초월한 자유로운 정보의 공유가 가능해짐에 따라 최근에는 ‘잊힐 권리’가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잊힐 권리’란 개인이 온라인 사이트에 올라가 있는 자신과 관련된 각종 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자신이 작성한 글에 대해서는 ‘잊힐 권리’를 인정하고 있지만, 타인이 나에 대해 올린 게시물에 대해서는 ‘잊힐 권리’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잊힐 권리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제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 측에서 입론을 해 주십시오. 찬성 1 : 먼저 하나의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스페인의 변호사 곤잘레스는 자신의 이름을 인터넷에서 검색하다가 자신이 지난 1998년 빚 때문에 집을 강제로 경매당한 내용의 기사를 보게 됩니다. 해당 기업에 기사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를 거절당하자, 그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럽의 사법 재판소는 해당 기업의 검색 결과에 나오는 링크를 삭제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과거의 부정적인 기록이 개인의 사생활과 더 나아가 행복 추구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 줬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정치인이나 연예인부터 일반 시민들에 이르기까지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사생활 침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자신의 과거 사진이나 행적, 발언 등이 자신도 모르게 이른바 ‘신상 털기’라는 이름으로 파헤쳐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국민 개인의 사생활은 어떤 경우에도 보호되어야 하므로, 이를 위해서는 ‘잊힐 권리’를 반드시 법제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입론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자 : ‘잊힐 권리’의 법제화는 개인의 사생활과 행복 추구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반대 측에서 반대신문을 해 주십시오. 반대 2 :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과거 행적’에는 범죄 사실도 포함됩니까? 찬성 1 : 그렇습니다. 범죄 행위에 대해서 그에 합당한 법적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미 처벌이 끝난 사안이 계속해서 인터넷에 남아, 범죄 행위를 저지른 사람에게 마치 추종 글씨처럼 평생의 낙인으로 남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 2 : [A] 찬성 1 : 사회에 커다란 악영향을 끼친 사건이라면 ‘잊힐 권리’가 있다고 해도 우리의 기억 속에서는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지워진 사건이라면, 잊는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될 만한 사건이 아니었다는 뜻 아닐까요?	사회자 : 찬성 측 토론자의 입론과 이에 대한 반대 측의 반대신문을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반대 측 토론자가 입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1 : ‘잊힐 권리’는 민주주의의 중요한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자신과 관련한 부정적인 사실들을 삭제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인터넷은 정보 공유나 권력 감시, 자유로운 소통 등의 순기능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잊힐 권리’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합니다. ‘알 권리’란 국민 개개인이 정치적·사회적 현실에 대한 정보를 자유롭게 알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만약 ‘잊힐 권리’가 제한 없이 행사된다면 정치인과 같은 공인에 대한 기록이 모두 삭제되어 국민들이 그들과 관련된 정보를 알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만약 선거에 후보자로 나선 어떤 정치인이 잘못을 저질렀던 과거의 행적을 전부 삭제한다면, 유권자들은 그 사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 수가 없어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잊힐 권리’를 법제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입론을 마치겠습니다. <보기> (가) ‘반대 신문식 토론’은 토론 주제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가진 각각의 토론자들이 입론 후 상대방의 토론자에게 질문을 하여 상대방 주장의 잘못된 점이나 논리적 허점을 지적하는 단계를 두는 특징이 있다. [학생1]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범죄 사실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학생2] 과거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지속적으로 불합리한 차별과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을까요? (나) [학생3] ‘잊힐 권리’를 제한 없이 허용한다면 일반인들의 소통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작성 방법> ○ 위 토론에서 ‘사회자’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쓸 것. ○ (나)에 제시된 내용 중 <보기(가)>와 위의 토론 맥락을 고려하여 [A]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지의 여부를 각각 판단하고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서술할 것.

	2018년 기출문제 출제영역 및 출제요소	정동해 2017년 출제 문제 모음
9번	[국어교육론] - 화법 설득 - 반대신문식토론	— 9~11월 실전모의고사반 [1회 모의고사-B형-서술형 01번] <적중포인트> ⇒ 반대신문식 토론의 발언 적절성 및 반대신문 단계의 효과 제시
	9. 다음은 “‘잊힐 권리’를 법제화하여야 한다.”라는 논제에 대한 학생 토론의 일부이다. 찬성 측 (1)의 ‘입론’과 반대 측 (2)의 ‘반대 신문’에 대한 지도 내용을 <작성 방법>에 따라 쓰시오. [4점] 찬성 측 (1): 찬성 측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잊힐 권리’란 온라인에서 자기와 관련된 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취업 준비생인 김 모 씨는 과거에 한 사이트에 자신이 올린 게시물을 지우고 싶지만, 해당 게시물에 댓글이 달려 지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고민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검색하면 검색 결과에 해당 게시물이 노출되어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까 두렵다고 합니다. 취업 준비생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를 고민하고 있지만 ‘잊힐 권리’가 인정되지 않고 있어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개인의 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발생할 수 있고 사회적 갈등도 확대될 것입니다. ‘잊힐 권리’를 법제화하면 법적 구속력이 생기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정보나 자신이 작성한 게시물만 삭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한 바 있고 이에 대한 여론의 지지도가 높기 때문에 ‘잊힐 권리’의 법제화는 실행 가능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없습니다. 반대 측 (2): 반대 신문하겠습니다. ㉠ ‘잊힐 권리’를 보장하는 법으로 이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찬성 측 (1): 물론입니다. ‘잊힐 권리’를 법제화하면 원치 않는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게시물을 삭제하지 못해서 발생할 수 있는 명예 훼손이나 취업 기회 박탈 등 개인이 누려야 할 자유권 침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대 측 (2): 이미 관련 법률이 있을 경우에는 법제화가 필요 없죠? 찬성 측 (1): 그렇습니다. 반대 측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2에 ‘정보의 삭제 요청’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찬성 측 (1):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반대 측 (2): ㉡ 저는 ‘잊힐 권리’보다 ‘표현할 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잊힐 권리’가 ‘표현할 권리’와 충돌한다면 어떤 권리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찬성 측 (1): 그거야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죠. ...(하략)... <작성 방법> ○ 정책 논제에 대한 토론의 ‘입론’에서 다루어야 할 필수 쟁점으로는 ‘문제 쟁점, 해결 쟁점, 이익 쟁점’의 3가지를 들 수 있다. 이 중에서 찬성 측 입론에 누락된 쟁점 1가지를 밝히고, 그 쟁점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서술할 것. ○ ㉠과 ㉡이 반대 신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이유를 각각 서술할 것.	1. 다음은 수업 중 진행한 토론의 장면이다. 교사의 지도내용을 <보기>를 바탕으로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사회자: 최근 정부에서는 심야 시간에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막는 강제적 섯다운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즉 부모가 요청할 경우 심야 시간에도 게임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부모 섯택제’를 도입한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정책 발표 이후 게임 섯다운제 폐지 논란이 다시 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게임 섯 다운제를 폐지해야 한다.’라는 논제로 먼저 찬성 측에서 발언해주시시오. 찬성 1: 저는 게임 섯다운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게임 섯다운제는 청소년들의 문화적 권리를 침해합니다. 청소년은 스스로 놀이의 즐거움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자살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만큼 학업스트레스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놀이조차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청소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게임 섯다운제는 국가가 나서서 청소년을 학업의 주체로 관리하고, 개인의 자유로운 온라인 활동을 통제한다는 점에서 구시대적 제도입니다. 둘째, 게임 섯다운제는 게임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장치입니다. 한국 경제 연구원에 따르면 게임 섯다운제로 인해 게임 산업의 매출이 대략 1조 1,600억 원 정도 감소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제도는 게임 콘텐츠에 대한 과도한 중복 규제까지를 포함하고 있어 게임 및 문화 콘텐츠 산업만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이 상입니다. 반대 2: ㉠ 찬성 측에서는 청소년의 게임 중독 현상에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으신가요? 비단 청소년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략)..... (하략).....

2018년 기출문제 출제영역 및 출제요소		정동해 2017년 출제 문제 모음																	
10 번	[문법] - 현대문법 음운론 - 음운 변동 - 유음화	- 7~8월 문제풀이반 국어교육론 1주차 [음운론] 10쪽 21번★ ★ <적중포인트> ⇒ 유음화에 대한 개념 제시 - 9~11월 실전모의고사반 [1회 모의고사-A형-서술형11번]★ <적중포인트> ⇒ 역행적 유음화와 자료 분석형으로 제시																	
	10. 다음은 유음화에 대한 수업의 일부이다. 교사가 이 수업에서 지도해야 할 내용을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칼날, 신라, 닳는, 읽는 교사: 여러분, ‘칼날’, ‘신라’, ‘닳는’, ‘읽는’을 순서대로 발음해보세요. 학생: [칼날], [실라], [달른], [잉는]입니다. 교사: 네, 잘했어요. 이 중 ‘칼날’, ‘신라’, ‘닳는’에서는 유음화가 일어나지만 ‘읽는’에서는 유음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제부터 유음화에 대해 더 알아봅시다. <작성 방법> ○ ‘칼날’과 ‘신라’에서 일어나는 유음화의 음운론적 환경을 밝히고 유음화의 방향을 각각 서술할 것. ○ ‘닳는’에서는 유음화가 일어나지만 ‘읽는’에서는 유음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를 비교하여 서술할 것.																		
21. 다음은 한 학생이 음운 현상 탐구를 위해 작성한 메모이다. 추가로 수집한 자료를 활용하기 위한 계획 중 수정해야 하는 항목을 찾고, 그 이유를 쓰시오. [2점]																			
◆ 탐구 과제 : ‘ㄹ’과 관련한 음운 현상에 대해 설명해 보자. 1. ‘ㄹ’탈락 ㉠ 놀+니 → [노니], 알+니 → [아니] 2. 유음화 ㉡ 달님[달림], 활는다[할른다]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tr><th style="width: 30%;">[수집한 자료]</th><th style="width: 10%;"></th><th style="width: 60%;">[자료 활용 계획]</th></tr><tr><td>딸+ 님 → [따님] 불+ 나비→[부나비]</td><td style="text-align: center;">...</td><td>‘1’의 예로 추가하고, ‘1’은 어간과 어미의 결합뿐 아니라 단어형성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음을 설명해야겠어. ①</td></tr><tr><td>살+ 느냐→[사느냐] 칼+ 날 →[칼날]</td><td style="text-align: center;">...</td><td>‘1’의 예로 추가하고, ‘1’은 ‘ㄹ’로 끝나는 형태소 뒤에 ‘ㄴ’이 오는 경우에도 나타날 수 있음을 설명해야겠어. ②</td></tr><tr><td>신라[실라] 논리[놀리]</td><td style="text-align: center;">...</td><td>‘2’의 예로 추가하고, ‘2’는 ‘ㄹ’뒤에 ‘ㄴ’이 올 때뿐 아니라 ‘ㄹ’앞에 ‘ㄴ’이 오는 경우에도 나타날 수 있음을 설명해야겠어. ③</td></tr><tr><td>밟는다[밟는다] 읽는다[잉는다]</td><td style="text-align: center;">...</td><td>‘ㄹ’이 들어간 겹받침의 경우 탈락하는 자음에 따라 ‘2’의 적용 여부가 달라짐을 설명해야겠어. ... ④</td></tr><tr><td>老人(로인) [노인] 來日(래일) [내일]</td><td style="text-align: center;">...</td><td>‘ㄹ’이 단어의 첫소리로 올 때 제약을 받는 현상을 새로운 항목 ‘3’으로 추가하고 ‘3’의 예로 제시해야겠어. ⑤</td></tr></table>		[수집한 자료]		[자료 활용 계획]	딸+ 님 → [따님] 불+ 나비→[부나비]	...	‘1’의 예로 추가하고, ‘1’은 어간과 어미의 결합뿐 아니라 단어형성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음을 설명해야겠어. ①	살+ 느냐→[사느냐] 칼+ 날 →[칼날]	...	‘1’의 예로 추가하고, ‘1’은 ‘ㄹ’로 끝나는 형태소 뒤에 ‘ㄴ’이 오는 경우에도 나타날 수 있음을 설명해야겠어. ②	신라[실라] 논리[놀리]	...	‘2’의 예로 추가하고, ‘2’는 ‘ㄹ’뒤에 ‘ㄴ’이 올 때뿐 아니라 ‘ㄹ’앞에 ‘ㄴ’이 오는 경우에도 나타날 수 있음을 설명해야겠어. ③	밟는다[밟는다] 읽는다[잉는다]	...	‘ㄹ’이 들어간 겹받침의 경우 탈락하는 자음에 따라 ‘2’의 적용 여부가 달라짐을 설명해야겠어. ... ④	老人(로인) [노인] 來日(래일) [내일]	...	‘ㄹ’이 단어의 첫소리로 올 때 제약을 받는 현상을 새로운 항목 ‘3’으로 추가하고 ‘3’의 예로 제시해야겠어. ⑤
[수집한 자료]		[자료 활용 계획]																	
딸+ 님 → [따님] 불+ 나비→[부나비]	...	‘1’의 예로 추가하고, ‘1’은 어간과 어미의 결합뿐 아니라 단어형성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음을 설명해야겠어. ①																	
살+ 느냐→[사느냐] 칼+ 날 →[칼날]	...	‘1’의 예로 추가하고, ‘1’은 ‘ㄹ’로 끝나는 형태소 뒤에 ‘ㄴ’이 오는 경우에도 나타날 수 있음을 설명해야겠어. ②																	
신라[실라] 논리[놀리]	...	‘2’의 예로 추가하고, ‘2’는 ‘ㄹ’뒤에 ‘ㄴ’이 올 때뿐 아니라 ‘ㄹ’앞에 ‘ㄴ’이 오는 경우에도 나타날 수 있음을 설명해야겠어. ③																	
밟는다[밟는다] 읽는다[잉는다]	...	‘ㄹ’이 들어간 겹받침의 경우 탈락하는 자음에 따라 ‘2’의 적용 여부가 달라짐을 설명해야겠어. ... ④																	
老人(로인) [노인] 來日(래일) [내일]	...	‘ㄹ’이 단어의 첫소리로 올 때 제약을 받는 현상을 새로운 항목 ‘3’으로 추가하고 ‘3’의 예로 제시해야겠어. ⑤																	
11. 다음은 ‘ㄴㄹ 연쇄’를 ‘단어의 경계 유무’에 따라 설명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탐구 내용을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가)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tr><th style="width: 50%;">관점.1</th><th style="width: 50%;">관점.2</th></tr><tr><td>음운론(<음운론, [[音韻論]]) 청산리(<청산리, [[靑山里]])</td><td>음운론(<음운론, [[音韻論]]) 청산니(<청산리, [[靑山]里])</td></tr></table> (나) 의미론[‘의미론’], 형태론[‘형태론’], 이해력[‘이해력’] ○[문제제기] ‘ㄴㄹ 연쇄’를 ‘단어의 경계 유무’에 따라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방법을 (나)에도 적용할 수 있는가? ○[타당성 검증 과정] ㄴㄹ 연쇄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 ㄴㄴ형과 ㄹㄹ형의 공존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단어 경계와 관련시켜 논의하는 것은 _____ ○[타당성 검증 결과] 어중에 ㄴㄹ 연쇄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 ㄴㄴ형과 ㄹㄹ형의 공존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단어 경계와 관련시켜 논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작성 방법> ○ <자료(가)>의 두 관점을 적용된 음운 변동에 대한 기술을 포함하여 각각 서술할 것. ○ <자료(나)>와 타당성 검증 결과를 고려하여 [타당성 검증 과정]의 내용을 완성할 것. (단, 검증 과정의 내용에 단어구조제약과 연관된 기술을 포함할 것.)		관점.1	관점.2	음운론(<음운론, [[音韻論]]) 청산리(<청산리, [[靑山里]])	음운론(<음운론, [[音韻論]]) 청산니(<청산리, [[靑山]里])														
관점.1	관점.2																		
음운론(<음운론, [[音韻論]]) 청산리(<청산리, [[靑山里]])	음운론(<음운론, [[音韻論]]) 청산니(<청산리, [[靑山]里])																		

	2018년 기출문제 출제영역 및 출제요소	정동해 2017년 출제 문제 모음										
12 번	[문학] - 현대시 작품론 - 김명수 『하급반 교과서』	- 7~8월 문제풀이반 4주차 [현대시] 해설지 29면 2번 <적중포인트> ⇒										
	2018-A서술-12. 다음은 작품의 표현 의도 이해를 위한 교수·학습 계획의 일부이다. 교수·학습 내용을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table><tr><td>학습 목표</td><td>표현 의도에 주목하여 작품을 이해할 수 있다.</td></tr><tr><td>활동 제재</td><td> 아이들이 큰소리로 책을 읽는다 ㉠나는 물끄러미 그 소리를 듣고 있다 한 아이가 소리내어 책을 읽으면 또 아이도 따라서 책을 읽는다 청아한 목소리로 꾸밈없는 목소리로 [A] “아니다 아니다!”하고 읽으니 “아니다 아니다!” 따라서 읽는다 “그렇다 그렇다!”하고 읽으니 “그렇다 그렇다!” 따라서 읽는다 외우기도 좋아라 하급반 교과서 활자도 커다랗고 읽기에도 좋아라 목소리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고 한 아이가 읽는 대로 따라 읽는다 이 봄날 쓸쓸한 우리들의 책읽기여 우리나라 아이들의 목청들이여 - 김명수, 『하급반 교과서』 </td></tr><tr><td>활동</td><td>(1) 1연과 2연의 분위기 차이 파악하기 (2) 작품의 표현 의도 추론하기 (3) 표현 의도에 주목하여 작품 이해하기</td></tr></table> 작성방법 ○ ‘쓸쓸한’이라는 시어를 중심으로 1연과 2연의 분위기 차이를 서술할 것. ○ ㉠에 나타난 화자의 태도를 서술할 것. ○ [A]에 담긴 의미를 서술할 것.	학습 목표	표현 의도에 주목하여 작품을 이해할 수 있다.	활동 제재	아이들이 큰소리로 책을 읽는다 ㉠나는 물끄러미 그 소리를 듣고 있다 한 아이가 소리내어 책을 읽으면 또 아이도 따라서 책을 읽는다 청아한 목소리로 꾸밈없는 목소리로 [A] “아니다 아니다!”하고 읽으니 “아니다 아니다!” 따라서 읽는다 “그렇다 그렇다!”하고 읽으니 “그렇다 그렇다!” 따라서 읽는다 외우기도 좋아라 하급반 교과서 활자도 커다랗고 읽기에도 좋아라 목소리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고 한 아이가 읽는 대로 따라 읽는다 이 봄날 쓸쓸한 우리들의 책읽기여 우리나라 아이들의 목청들이여 - 김명수, 『하급반 교과서』	활동	(1) 1연과 2연의 분위기 차이 파악하기 (2) 작품의 표현 의도 추론하기 (3) 표현 의도에 주목하여 작품 이해하기	2. 다음은 ‘시어의 상징적 의미와 작품과 현실과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수업 자료이다. 시 전체의 의미 맥락에서 아래 작품을 해석한 <자료>의 괄호 안 ㉠, ㉡, ㉢에 해당하는 내용을 순서대로 쓰시오. [2점] 아이들이 큰 소리로 책을 읽는다. 나는 물끄러미 그 소리를 듣고 있다. 한 아이가 소리를 내어 책을 읽으면 또 아이도 따라서 책을 읽는다. 청아한 목소리로 꾸밈없는 목소리로 "아니다 아니다!"라고 읽으니 "아니다 아니다!" 따라서 읽는다. "그렇다 그렇다!" 하고 읽으니 "그렇다 그렇다!" 따라서 읽는다. 외우기도 좋아라 하급반 교과서 활자도 커다랗고 읽기에도 좋아라. 목소리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고 한 아이가 읽는 대로 따라 읽는다. 이 봄날 쓸쓸한 우리의 책 읽기여 우리나라 아이들의 목청들이여 - 김명수, 『하급반 교과서』 <자료> ○ 시적 화자는 아이들의 행동은 책을 따라서 읽는 행동을 (㉠) (으)로 인식하고 있다. ○ "'아니다 아니다!"라고 읽으니 "아니다 아니다!" 따라서 읽는다.'에서는 비판 의식이나 자각 없이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저급한 사회의 모습을 보여준다. ○ 위 작품을 통해 작가는 어떠한 현실을 비판하려 하고 있다. 교육의 측면에서는 획일적,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을 비판한다고 볼 수 있고, 사회의 측면에서는 (㉡)을/를 비판한다고 볼 수 있다. ○ 위 작품은 사회의 부정적 모습을 밝고 명랑한 어조를 통해 드러냄으로써 (㉢)을/를 강화하고 있다. <table><tr><td>㉠.[출제영역]</td><td>[현대시] - 1980년대</td></tr><tr><td>㉡.[출제의도]</td><td>시어의 상징적 의미와 작품과 현실과의 관계 이해</td></tr></table> ☞. 정답제시 및 문제해설 [핵심키워드] ⇒ ㉠ : 비판적([허용] 부정적)-[0.5점] ⇒ ㉡ : 일방적인 논리가 통용되는 강압적인 사회-[1점] ([허용] 비민주적이고 억압적인 사회, 독재정권과 군부정권으로 인한 억압적인 사회) ⇒ ㉢ : 풍자성-[0.5점]	㉠.[출제영역]	[현대시] - 1980년대	㉡.[출제의도]	시어의 상징적 의미와 작품과 현실과의 관계 이해
학습 목표	표현 의도에 주목하여 작품을 이해할 수 있다.											
활동 제재	아이들이 큰소리로 책을 읽는다 ㉠나는 물끄러미 그 소리를 듣고 있다 한 아이가 소리내어 책을 읽으면 또 아이도 따라서 책을 읽는다 청아한 목소리로 꾸밈없는 목소리로 [A] “아니다 아니다!”하고 읽으니 “아니다 아니다!” 따라서 읽는다 “그렇다 그렇다!”하고 읽으니 “그렇다 그렇다!” 따라서 읽는다 외우기도 좋아라 하급반 교과서 활자도 커다랗고 읽기에도 좋아라 목소리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고 한 아이가 읽는 대로 따라 읽는다 이 봄날 쓸쓸한 우리들의 책읽기여 우리나라 아이들의 목청들이여 - 김명수, 『하급반 교과서』											
활동	(1) 1연과 2연의 분위기 차이 파악하기 (2) 작품의 표현 의도 추론하기 (3) 표현 의도에 주목하여 작품 이해하기											
㉠.[출제영역]	[현대시] - 1980년대											
㉡.[출제의도]	시어의 상징적 의미와 작품과 현실과의 관계 이해											

	2018년 기출문제 출제영역 및 출제요소	정동해 2017년 출제 문제 모음
13 번	[문학] - 고전시가 작품론 - 오륜시가	- 7~8월 문제풀이반 3주차 [고전문문] 해설지 48면 8 번 <적중포인트> ⇒ 주세붕의 ‘오륜가’ 작품 적중
	13. 다음은 조선 시대 오륜시가를 탐구하기 위한 교수·학습 자료이다. <보기>를 참 고하여 오륜시가의 감상 내용에 대해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가) 아바님 랄 나후시고 어마님 랄 기르시니 父母(父)아니시면 ㉠내 몸이 업실랸다 이 덕을 갑꼭려 하니 하늘 ㄱ이 업스랸다 <제2수> 동과 향것*과를 뉘라셔 삼기신고 별와 가여미**아 이 뜨들 문져 아이*** 훈 ㄹ으매 두 뜯 업시 소기지나 마음생이다 <제3수> - 주세붕, 『오륜가』 (나) 부모은덕 모로고서 ㉡제 몸만 중이 알며 제 몸의 의식지절 먹고 입기 풍비호되 부모의게 하올겨슨 등한이 이져시니 부모의 훈계 칙망 덕답의 불순하여 형긔갓치 덕접하니 툴기가 물너진다 사라셔 불효라도 그 부모 주겨지면 남의 이목 위하여서 삼연거상 이불적의 실훈 우름 강잉하고 읍난 정성 지여너여 예절을 아난다시 경찬으로 제우한달 나무 이목 두려우니 그 놈 아니 주길손가 말 못하는 가마귀도 반포할 줄 아라거든 사람이라 위명하고 미물만도 못하여라 부모의게 득죄하고 세상의 엇지 용납하리 명천이 미워흐스 양화가 일노나니 그 아니 두려우며 전들 어이 죠홀손가 ... (하략) ... - 박시징, 『오륜가』 * 동과 향것 : 종과 주인. ** 가여미 : 재미. *** 아이 : 아니. <보 기> 오륜시가는 조선 시대 전반에 걸쳐 창작되었고, 여러 장르에서 다양 한 표현 방식을 창출하면서 전개되었다. 조선 전기 악장 『오륜가』에서 부터 주세붕의 시조 『오륜가』, 조선 후기 박시징의 가사 『오륜가』 등 이 그 예라 할 수 있다. 성리학적 이념에 따라 건국된 조선은 윤리적 교화로써 공동체의 질 서를 세우고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오륜시가를 지어 보급하였다. 오륜 교화의 목적은 상하를 분별하여 낮은 위치에 놓인 사람이 높은 위치에 놓인 사람에 대해 오륜의 도리를 당위적으로 실천하게 하는 데 있다. 이 러한 이유로 교화 대상자를 설득하기 위해 문학적 장치가 필요했다. 오륜시가의 작가는 작품 속 인물에 따라 전달 방식을 달리함으로써 독자는 의무적 수용 혹은 자발적·성찰적 수용 사이에 놓이게 된다. <작성 방법> ○ ㉠, ㉡을 중심으로 (가), (나)의 전달 방식의 차이점에 대해 서술할 것. ○ (가), (나)에서 각 작품과 관련된 오륜의 덕목을 드러내고 있는 자연 물을 각각 찾고, 그 자연물을 끌어들이 이유를 서술할 것. <td> 8. <보기>는 작품의 시어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준비한 자료이 다. 괄호 안의 ㉠~㉢에 해당하는 말을 순서대로 쓰시오. [2점] 사람 사람마다 이 말슴 드러스라 이 말슴 아니면 사람이오 사람 아니니 이 말슴 닛디 말오 빅호고야 마로령이다 아바님 날 나후시고 ㉡어마님 날 기르시니 부모(父母)아니시면 내모미 업실랸다 이 덕을 갑꼭려 하니 하늘 ㄱ이 업스랸다 동과 *향것과를 뉘라셔 삼기신고 별과 *가여미아 이 뜨들 문져 아니 훈 ㄹ으매 두 뜯 업시 소기지나 마음생이다 지아비 받 갈라 간 덕 밍고리 이고 가 반상을 들오디 눈썹의 마초이다 친코도 고마오시니 손이시나 드르실가 형님이 자신 저줄 내 조처 머궁이다 어와, 더 아스야 어마님 너 사랑이야 형제웃 불화(不知)하면 개 도티라 흐리랴 늘그니는 부모 ㄱ고 일우논 형 ㄱ트니 ㄱ트 덕 불공(不恭)하면 어디가 드를고 *랄려서 ㄹ지어시든 절호고야 마로령이다 - 주세붕, 『오륜가(五倫歌)』 *향것: 주인 *가여미: 재미 *랄려서 ㄹ지어시든: 나이가 많으시거든 <보 기> 기 본 ▶ ‘동’과 ‘향것’은 각각 (㉠)을/를 함축적으로 드러 낸 것이라고 볼 수 있군. ▶ ‘반상’과 ‘손’은 남편에 대한 공경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 된 소재로 볼 수 있군. ▶ ‘형님이 자신 저줄’은 형제 사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 해 사용된 소재로 볼 수 있군. ▶ ‘개’, ‘도티’는 (㉡)을/를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 소재로 볼 수 있군. (중략) </td>	8. <보기>는 작품의 시어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준비한 자료이 다. 괄호 안의 ㉠~㉢에 해당하는 말을 순서대로 쓰시오. [2점] 사람 사람마다 이 말슴 드러스라 이 말슴 아니면 사람이오 사람 아니니 이 말슴 닛디 말오 빅호고야 마로령이다 아바님 날 나후시고 ㉡어마님 날 기르시니 부모(父母)아니시면 내모미 업실랸다 이 덕을 갑꼭려 하니 하늘 ㄱ이 업스랸다 동과 *향것과를 뉘라셔 삼기신고 별과 *가여미아 이 뜨들 문져 아니 훈 ㄹ으매 두 뜯 업시 소기지나 마음생이다 지아비 받 갈라 간 덕 밍고리 이고 가 반상을 들오디 눈썹의 마초이다 친코도 고마오시니 손이시나 드르실가 형님이 자신 저줄 내 조처 머궁이다 어와, 더 아스야 어마님 너 사랑이야 형제웃 불화(不知)하면 개 도티라 흐리랴 늘그니는 부모 ㄱ고 일우논 형 ㄱ트니 ㄱ트 덕 불공(不恭)하면 어디가 드를고 *랄려서 ㄹ지어시든 절호고야 마로령이다 - 주세붕, 『오륜가(五倫歌)』 *향것: 주인 *가여미: 재미 *랄려서 ㄹ지어시든: 나이가 많으시거든 <보 기> 기 본 ▶ ‘동’과 ‘향것’은 각각 (㉠)을/를 함축적으로 드러 낸 것이라고 볼 수 있군. ▶ ‘반상’과 ‘손’은 남편에 대한 공경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 된 소재로 볼 수 있군. ▶ ‘형님이 자신 저줄’은 형제 사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 해 사용된 소재로 볼 수 있군. ▶ ‘개’, ‘도티’는 (㉡)을/를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 소재로 볼 수 있군. (중략)

	2018년 기출문제 출제영역 및 출제요소	정동해 2017년 출제 문제 모음
14 번	[문학] - 고전산문 갈래론 - 최충전 [최치원전/최고운전]	- 9~11월 50일 이론정리 특강④ [문학 59쪽 13번] <적중포인트> ⇒ 「최고운전」
	14. 다음을 읽고 <보기>를 참고하여 설화와 소설의 관련성에 대해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최충이 좋은 날을 가려 발행(發行)하여 문창현에 이르러서 사무를 인계 받은 후에, 아전에게 붉은 실을 거둬들이라고 분부하였다. 그러고는 그 실을 무수하게 길게 이어, 한 끝을 아내의 몸에 매고 있었다. 하루는 구름과 안개가 사방을 에워싸고 바람이 천지를 진동하여 지척(咫尺)도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이때 최충은 외당(外堂)에서 바야흐로 공무를 보다가 날씨가 크게 변하는 것을 보고 매우 놀랐다. 이윽고 날씨가 맑게 개이더니, 안에서 종들이 급히 나와 울면서 아뢰었다.(중략)... “이런 요사스런 변괴를 누가 알 수 있었겠는가? 다만 붉은 실이 들어간 곳을 찾아갈 뿐이다.”하고, 하리들 가운데 용력과 지식을 가진 아전인 이적을 데리고 칼을 손에 쥐고서 붉은 실을 따라갔다. 그 붉은 실이 북악산 꼭대기에 있는 큰 바위 틈으로 들어갔는지라, 최충이 크게 기뻐하며 살펴보니, 문이 큰 돌로 닫혀 있었다. 이적으로 하여금 그 돌을 치우게 하고 깊이 들어가니, 문득 일월이 명량한 별천지였다. 단청을 한 누각이 영롱하며 문호가 엄숙하되, 인적도 없고 새나 짐승도 보이지 않았다. 문안에 들어가 물레 창밖에 서서 동정을 살펴며 창틈으로 엿보니, 절대佳人(絶對佳人) 수십 명이 좌우에 벌여 앉아 있는데, 아내는 가운데 앉아 있고 한 금궐지가 아내의 무릎을 베고 누워 머리의 이를 잡게 하고 있었다. 최충이 아내가 살아 있음을 보고 기뻐하나 이러한 형상을 보니 간담이 떨어지는 듯 분노가 하늘 높이 치솟았다. 그러나 감히 일을 착수하지 못하고 다만 아내가 나오기를 기다리니, 부인이 창밖에 최충이 왔음을 알고 금궐지에게 말했다. ... (중략) “비록 죽은 가족이나 사슴 가족에 침을 묻혀 내 이마에 붙이면 한마디 말도 못하고 즉시 죽느니라.” 부인이 마음속으로 은근히 기뻐하며 생각하니, 치마끈에 찬 열쇠끈이 마침 사슴 가족인지라. 크게 기뻐하며 금궐지가 잠들기를 기다려 몰래 열쇠끈을 풀어 침을 묻혀 그 이마에 붙이니, 과연 금궐지가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곧바로 죽어버렸다. 부인이 크게 기뻐하여 무릎을 베고 일어나 창문을 열어젖히니, 최충이 밖에 서 있었다. 최충이 아내를 만나게 되자 자연히 두려움이 없어졌다. 그래서 몸소 방안으로 들어가 금궐지를 보니, 이미 죽어 있는데 생긴 모양이 아주 흉악하였다. - 『최충전』 <보 기> 윗글은 최치원의 부친 최충과 관련된 부분으로 ‘야래자(夜來者) 설화’, ‘지하국대적퇴치(地下國大賊退治) 설화’와의 상관성을 보여 준다. ㉠야래자 설화의 주요 내용은 ‘밤마다 누군가가 여인과 동침하고 간다. 바늘과 실을 따라가 그 정체를 확인한다. 비범한 인물이 탄생한다.’는 것이다. 지하국대적퇴치 설화는 대체로 ‘대적이 여인을 납치해 간다. ㉡남성 등장인물이 대적이 있는 곳으로 가서 대적을 퇴치하고 여인을 구출한다.’는 내용으로 이루어진다. ○ 윗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을 구체적 대상을 들어 설명하고, 그 내용이 윗글의 사건 전개상 어떤 기능을 하는지 서술할 것. ○ ㉡의 내용이 윗글에 수용되면서 달라진 점을 찾고, 그 차이가 지니는 의미를 서술할 것.	13. 다음을 읽고 인물의 역할과 서사 구조에 따른 작품의 의미를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치원이 낙양(洛陽)에 이르니, 한 학사(學士)가 물기를, “해와 달은 하늘에 걸려 있는데 하늘은 어디에 걸려 있는고? [日月縣於天而 天何縣之耶] ”하니, 치원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산과 물은 땅에 실려 있는데 땅은 어디에 실려 있는고? [山水載於地面 地何載耶] ” 하거늘 그 학사가 능히 문답(問答)을 하지 못하더라. 황제는 치원이 온다는 말을 듣고 치원을 속이고자 첫째, 둘째, 셋째 문 안에 땅을 파고 그 안에 여러 명의 악인(樂人)을 넣어 놓고 경계하여 명하기를, “치원이 들어오거든 풍악을 요란스럽게 울려 정신을 못 차리도록 하고 또 함정 위에다 얹은 소판을 깔고 그 위에 흙을 덮어, 잘못 밟으면 빠져 죽게 하라.” 하시고 또 넷째 문 안에는 사나운 코끼리를 숨겨 놓은 후에 치원을 들어오게 하였다. 이에 치원이 의관을 정제하고 문으로 들어가려는데 50척 되는 사모(紗帽)의 뿔이 문에 걸려 들어갈 수가 없는지라. 치원이 탄식하며 말하기를, “비록 소국의 문도 뿔이 닿지 않거늘 하물며 대국의 문으로 썩어 어찌 이같이 작고 낮은가.” 하며 들어가지 않고 서 있는지라. 황제가 듣고 매우 부끄러이 여기고 즉시 문을 열게 하고 다시 들어오라 불렀다. 이에 문으로 들어가는데 땅 속에서 요란한 악성(樂聲)이 들리는고로 붉은 부작을 던지니 조용해졌다. 이어서 둘째 문에 이르니 또 악성이 들리는지라 흰 부작을 던지고, 셋째 문에 이르러 또 풍악 소리가 나므로 푸른 부작을 던지고, 넷째 문에 이르러서 코끼리가 숨어 있는 휘장 안에 누런 부작을 던지니 그 부작이 누런 뱀으로 화하여 코끼리의 입을 감으니 코끼리가 입을 열지 못하더라. 이리하여 무사히 들어가니, 황제는 치원이 아무런 화를 입지 않고 문을 지나 들어왔다는 말을 듣고 크게 놀라며, “이 사람이 과연 천신(天神)이로다.” 하더라. 다섯째 문에 이르니 학사들이 좌우로 줄지어 서서 다투어 서로 묻는 것이었다. 치원은 대답하지 않고 시로써 응대하니 학사들이 칭찬하지 않는 이 없었다. 순식간에 지은 시가 불가승기(不可勝記)더라. 어전(御前)에 이르니 황제가 용상에서 내려와 맞이하여 상좌(上座)에 앉히고 물기를, “경이 함 속의 물건을 알아내어 시를 지었는가?” / 하니, “네 그러하옵니다.” / 하고 대답하매 또 물기를, “경이 어떻게 해서 알았는가?” / 하니 대답하여 아뢰기를, “신이 듣건대 현철(賢哲)한 사람은 비록 천상(天上)에 있는 물건도 오히려 능히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신이 미천하고 불민하오나 어찌 석함 속의 물건을 알지 못하겠나이까?” 하거늘 황제가 또 물기를, “삼문(三門)에 들어올 때 풍악 소리를 못 들었느냐?” / 하니 대답하기를, “못 들었습니다.” / 하거늘, 삼문 안에서 풍악을 울리던 사람을 불러 물으니 모두 말하기를, “저희들이 풍악을 연주하려고 하면 붉은 옷을 입은 수천 명이 와서 쇠뿔치를 가지고 치면서 풍악을 울리지 못하게 하며, ‘큰 손님이 오시니 떠들지 말라.’ 하는 고로 능히 풍악을 울리지 못하였나이다.” / 라고 하는 것이었다. 황제가 크게 놀래어 사람을 시켜 가 보게 하였더니 땅굴 속에 큰 뱀들이 우글우글하였다. 황제는 기이히 여기고서 말하기를, “치원은 보통 사람이 아니니 경술히 대접할 수 없도다.” 하고 학사들로 하여금 항상 치원을 따라다니면서 대접케 하니 따라다니는 무리들은 군자(君子)와 같이 대접하더라.

	정동해 2017년 출제 문제 모음	정동해 2017년 출제 문제 모음
14 번	－ 9~11월 실전모의고사반 [1회 모의고사-B형-논술형] <적중포인트> ⇒ 효녀지은 설화와 심청전의 전승 과정을 학습목표로 제시★★	－ 9~11월 실전모의고사반 [6회 모의고사-B형-서술형07번] <적중포인트> ⇒ 설화 갈래의 개념과 창작동기를 ‘주몽신화’를 통해 제시★
	8. 다음은 “전승 과정에 유의하여 한국 문학의 흐름을 이해한다.”라는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선정한 작품들이고, <보기>는 이와 관련된 학습 활동이다. 학습 활동의 교수·학습 내용을 <작성 방법>에 따라 한 편의 글로 논술하시오. [10점] (가) 판소리계 소설은 판소리 사설이 독서 기록물로 정착되면서 형성되었다. 판소리 사설을 기록한 것으로는 창본이 먼저 주목된다. 창본은 판소리 연행 현장에서 실제로 부른 사설을 그대로 채록하거나, 창으로 사용하기 위해 만든 대본을 가리킨다. 창본에는 ‘창’, ‘아니리’, ‘진양조’와 같은 용어들이 표기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판소리 사설을 기록한 것으로 현재까지 가장 많이 전승되고 있는 것은 필사본이라고 할 수 있다. 창본도 필사본이 많지만, 여기서 말하는 필사본은 곡조나 장단 표기가 되어 있지 않고 일반적인 독서물의 형태를 띠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필사본들은 연행 현장에서 채록된 것도 있겠으나, 대부분은 이미 기록물로 전환된 서책이 유통되면서 파생된 것으로 추정된다. 판소리의 대본인 판소리 사설도 음악적인 율격을 갖추고 있고, 이것이 판소리계 소설에도 큰 변화 없이 나타난다. 또한 판소리계 소설에는 운문체와 산문체의 결합, 문체의 이중성, <u>관음성 상징어의 활발한 사용</u>, 대목의 열거, 사실적인 어투, 서술자의 개입과 같은 특성도 나타난다. 판소리의 대본은 대체로 오래 전부터 전해오던 근원 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져 광대들에 의해 전승되었기에 판소리계 소설에도 이러한 특징이 나타나 있다. [A] 예를 들어, 「심청전」의 경우에도 신에게 사람을 재물로 바치는 ‘인신공회설화’, 맹인이 눈 뜨는 ‘개안 설화’, ‘효행 설화’, ‘재생 설화’ 등과 같은 설화적 화소가 결합하여 여러 사람들의 첨삭을 거친 적층 문학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특히, ‘효녀 또는 효자의 부모를 위한 희생-기적 발생 또는 조력자 도움-부모 문제의 극적 해결’이라는 효행 설화의 기본 서사 구조가 심청전에서 확인된다. (나) 작자 미상, 「심청전」 (하략).....	7. 다음은 “서사 갈래의 특징 및 그것에 속하는 한국 문학의 역사적 갈래를 이해한다.”라는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마련한 자료이다. 주요 내용을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5점] (가) 시조(始祖) 동명성제(東明聖帝)의 성(姓)은 고씨(高氏)요, 이름은 주몽(朱蒙)이다. 이보다 앞서 북부여(北扶餘)의 왕 해부루(解夫婁)가 이미 동부여(東扶餘)로 피해 가고, 부루가 죽자 금와(金蛙)가 왕위를 이었다. 이때 금와는 태백산(太白山) 남쪽 우발수(優渤水)에서 여자 하나를 만나서 물으니 그 여자는 말하기를, “나는 하백(河伯)의 딸로서 이름을 유화(柳化)라고 합니다. 여러 동생들과 함께 물 밖으로 나와서 노는데, 남자 하나가 오더니 자기는 천제(天帝)의 아들 해모수(解慕漱)라고 하면서 나를 웅신산(熊神山) 밑 압록강(鴨綠江)가의 집 속에 유인하여 남몰래 정을 통하고 가더니 돌아오지 않았습시다. 부모는 내가 중매도 없이 혼인한 것을 꾸짖어서, 드디어 이곳으로 귀양 보냈습시다.”했다. (하략)..... － 작자 미상, 「주몽 신화」 (나) 옛날에 삼나라를 다스리던 어비 대왕이 있었는데, 길대 부인을 맞이하여 혼례를 치르기 전에 점을 쳤다. 점괘에 금년에 혼례를 치르면 일곱 명의 공주를 보지만, 내년엔 치르면 세자 대군을 본다고 하였다. 그러나 어비 대왕은 점괘를 무시하고 혼례를 치른다. 혼례 후 길대 부인은 딸 여섯을 낳고, 또다시 일곱째 공주를 낳게 된다. 이에 어비 대왕은 일곱째 딸을 옥함에 넣어 강물에 버리게 한다. 그러나 금거북이가 나타나 옥함을 지고 간다. 이후 석가세존이 비리공덕 할 아버지와 비리공덕 할머니에게 비리공주를 보내 기르게 하였다. (하략)..... － 작자 미상, 「바리데기」 <작성 방법> ○ (가), (나)를 통해 알 수 있는 고대인의 세계관을 근거를 들어 각각 두 가지씩 서술할 것. ○ (가), (나)의 역사적 갈래를 밝히고, 창작 동기(전승 의도)를 비교하여 서술할 것.

[2018년 B형] 2018년 중등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전공국어 적중리스트

	2018년 기출문제 출제영역 및 출제요소	정동해 2017년 출제 문제 모음
1번	[문법] - 현대문법 형태론 - 본동사.보조동사.합성어 구별	- 9~11월 실전모의고사반 [1회 모의고사-A형-서술형12번] <적중포인트> ⇒ 본+본/본+보조/합성용언 구별
	1. 다음 <자료>를 보고 ‘-아/어’가 결합된 용언의 구성에 대해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국어에서는 2개 이상의 동사가 연속적으로 나올 때, 2개의 동사가 ‘-아/어’에 의해 결합한 구성을 흔하게 볼 수 있다. 이러한 구성은 3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첫째는 본동사와 본동사가 결합한 구성, 둘째는 본동사와 보조 동사가 결합한 구성, 셋째는 통사적 합성어인 경우이다. 이들 3가지 구성은 ‘-아/어’와 ‘-아서/어서’의 대치 가능성, 본동사 원래 의미의 유지 여부, 새로운 단어 형성 여부 등을 통해 구별할 수 있다. (1) a. 삼촌은 가방을 ㉠만들어 팔았다. b. 그 합창곡은 나도 여러 번 ㉡들어 보았다. (2) a. 휴지통에 종이를 ㉢구겨 버렸다. b. 발표자는 반론의 가능성을 ㉣막아 버렸다. (3) 쓸데없는 일을 하느라고 시간만 ㉤잡아먹었다. <작성 방법> ○ ‘-아서/어서’와의 대치 가능성을 기준으로 ㉠과 ㉡이 위에 제시한 3가지 구성 중 어느 구성에 해당하는지 각각 서술할 것. ○ ㉢, ㉣에서 ‘버리다’의 원래 의미가 유지되는지를 밝혀 각각이 본동사와 보조 동사 중 어디에 속하는지 서술할 것. ○ ㉤을 붙여 쓴 이유를 ㉠~㉤과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서술할 것.	12. 다음은 ‘합성용언과 구의 특성을 이해한다.’라는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자료이다. <작성방법>에 따라 지도내용을 서술하시오. [4점] (1) (가) a. 김 과장은 서류를 읽어 <u>보았다</u>. b. 원숭이는 바나나를 다 먹어 <u>버렸다</u>. (나) a. 김 과장은 서류를 <u>보았다</u>. b. 원숭이는 바나나를 다 <u>버렸다</u>. ○ 유형.① A+B=A+B ○ 유형.② A+B=Ab ○ 유형.③ A+B=C (2) (가) 돈을 <u>받아 갔다</u>. (나) 밥을 다 먹어 <u>갔다</u>. (다) 집안 어른이 <u>돌아가셨다</u>. <작성 방법> ○ (1)를 근거로 보조용언의 특성을 의미적 측면에서 서술할 것. ○ 유형①~③에 해당하는 예문을 (2)에서 찾아 각각 연결 짓고, 유형별 구별 기준을 3가지 적용하여 그 특성을 각각 제시할 것.

	2018년 기출문제 출제영역 및 출제요소	정동해 2017년 출제 문제 모음
2번	[문학] - 고전운문 작품론 - 『어이 못 오던다~』, 『天寒코 t雪深흔 날에~』	- 9~11월 50일 이론정리 특강④ [문학 30쪽 27번] <적중포인트> ⇒ 사설시조에 나타나는 문제 해결 과정 파악 - 7~8월 문제풀이반 문학 [4주차 6쪽 서술형 1번] <적중포인트> ⇒ 사설시조 형식상·표현상 특징 (장황하게 열거, 나열)
	2. 다음을 읽고 사설시조의 형식적 특성과 화자의 태도에 대해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가) 어이 못 오던다 므스 일로 못 오던다 너 오는 길 우회 ㉠무쇠로 城을 뚫고 城 안에 담 뚫고 담안혜란 집을 짓고 집 안혜란 두지 노코 두지 안혜 橫를 노코 橫 안에 너를 結縛하여 너코 雙비목 외걸새에 龍 거북 즈물쇠로 수기수기 잠갓 더냐 네 어이 그리 아니 오던다 흔 돌이 설흔 날이여니 날 보라 올 홀리 업스랴 (나) 天寒코 雪深흔 날에 님 츠즈라 天上으로 갈제 신 버서 손에 쥐고 보선 버서 품에 품고 ㉡골뵈님뵈 뉘뵈골뵈 천방지방 지방천방 흥번도 쉬지 말고 허위허위 올라가니 보선 버슨 밝은 아니 스리되 념의온 가슴이 산득산득 흥여라 <보 기> 사설시조의 형식적 특징 중 하나는 병렬을 통한 장형화라 할 수 있다. 병렬은 의미론적 지향이 동일한 두 가지 이상의 통사 형식이 나란히 놓이는 방식으로, 통합적 병렬과 계열적 병렬로 나눌 수 있다. 통합적 병렬은 의미상 또는 행위의 축에서 연쇄성을 지니거나 단계성을 가지는 것을 뜻하며, 계열적 병렬은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단어나 어구가 나열·반복되는 것을 뜻한다.	[서술형] 1. 다음은 “조선후기 사설시조의 특징과 양상을 알 수 있다.”라는 학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마련한 작품들이다. 주요 내용을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5점] (가) 서방(書房)님 병(病) 들어 두고 쓸 것 업서 종루(鐘樓) 저직 달릭 파라 빅 사고 감 사고 유자(榴子) 사고 석류(石榴) 싹타 아츰아츰 이저고 오화당(五花糖)을 니저발여고나 수박(水朴)에 술 꼬즈 노코 한숨계워 흥노라 - 김수장 (나) 창(窓) 내고자 창(窓)을 내고자 이 내 가슴에 창(窓) 내고자 고모장지 세살장지 들장지 열장지 암돌겨귀 수돌겨귀 비목걸새 크나큰 장도리로 종작 바가 이 내 가슴에 창(窓) 내고자 잇다감 하 답담흥 제면 여다저 불가 흥노라. - 작자 미상 (다) 택(宅)들에 동난지이 사오. 저 장사야 네 황화 그 무엇이라 왜는다 사자. 외골내육(外骨內肉) 양목(兩目)이 상천(上天) 진행(前行) 후행(後行) 소(小)아리 팔족(八足) 대(大)아리 이족(二足) 청장(淸醬) 아스 숙하는 동난지이 사오. 장사야 하 거북이 웨지 말고 게젓이라 하렴은. - 작자 미상 ○ (가)와 (나)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형식상·표현상의 특징을 서술하고, 그 효과를 주제와 관련지어 서술할 것.(단, 형식상 특징으로 음보는 제외할 것) ○ (다)에서 시적 화자가 풍자하고자 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본문에서 찾아 쓰고, 작품의 주제 의식을 서술할 것. ○ 조선후기 사설시조 발달의 문학사적 의의를 문학 담당층을 중심으로 서술할 것.

2018년 기출문제 출제영역 및 출제요소

정동해 2017년 출제 문제 모음

3번

[문학] - 현대소설

작품론 - 봄봄(김유정)

3. 다음을 읽고 작품에 대한 이해를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이래서 나는 애초에 계약이 잘못된 걸 알았다. 이태면 이태, 삼 년이면 삼 년, 기한을 딱 작정하고 일을 했어야 된 할 것이다. 덮어놓고 딸이 자라는 대로 성례를 시켜주마, 했으니 누가 늘 지키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 키가 언제 자라는지 알 수 있는가. 그리고 난 사람의 키가 무럭무럭 자라는 줄만 알았지 불배기 키에 모로만 벌어지는 몸도 있는 것을 누가 알았으랴. 때가 되면 장인님이 어린하랴 싶어서 군소리 없이 꾸벅꾸벅 일만 했었다. 그럼 말이다, 장인님이 제가 다 알아차려서,

“어 참 너 일 많이 했다. 고만 장가들어라.”

하고 살림도 내주고 해야 나도 좋을 것이 아니냐. 시치미를 딱 떼고 도리어 그런 소리가 나올까 봐서 지레 필필 뛰고 이 야단이다. 명색이 좋아 데릴사위지 일하기에 섬김기도 할뿐더러 이진 참 아무것도 아니다.

숙백이 그걸 모르고 점순이의 키 자라기만 까맣게 기다리지 않았다.

언젠가는 하도 갑갑해서 자를 가지고 덤벼들어서 그 키를 한번 제불까, 했대미는 우리는 장인님이 내의를 해야 한다고 해서 마주 서 이야기도 한마디 하는 법 없다. 우물길에서 어찌다 마주칠 적이면 겨우 눈여덤으로 제보고 하는 것인데 그럴 적마다 나는 저만치 가서,

“제—니 키두!” / 하고 눈독에 침을 뱉, 뱉는다. 아무리 잘 봐야 내 거드랑(다른 사람보다 좀 크긴 하지만) 밑에서 넘을라딱락 발났 요 모양이다. 개돼지는 쪽쪽 크는데 왜 이리도 사람은 안 크는지, 한동안 머리가 아프도록 궁리도 해보았다. 아하 물동이를 자꾸 이니가 빠다귀가 움즈르드나 보다, 하고 내가 년짓년지시 그 물을 대신 길어오 주었다. 뿐만 아니라 나무를 하러 가면 서낭당에 물을 올려놓고,

“점순이의 키 좀 크게 해줄소사. 그러면 담엔 떡 갓다놓고 고사드림조니까.” / 하고 치성도 한두 번 드린 것이 아니다. 어떻게 돼먹은 낀지 이래도 막무가내니 —

그래 내 어저께 싸운 것이지 결코 장인님이 밋다든가 해서가 아니다.

모를 부다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가 또 심겁다. 이 버가 자라서 점순이가 먹고 좀 큰단면 모르지만 그렇지도 못한걸 내 심어서 뭘 하는 거냐. 해마다 앞으로 축 거북지는 장인님의 아랫배(가 너무 먹은 걸 모르고 내뺌이라나 그 배)를 불리기 위하여 심곤 조금도 싶지 않다.

“아이구 배야!” / 난 물 부다 말고 배를 쓰다듬으면서 그대로 눈독으로 기어 올랐다. 그리고 거드랑에 켜던 버 담긴 키를 그냥 땅바닥에 털썩, 떨어뜨리며 나도 털썩 주지않았다. 일이 얌만 바빠도 나 배 아프면 고만이니까. 아픈 사람이 누가 일을 하느냐. 파릇파릇 돌아오른 풀 한 숲을 뜯어 들고 다리의 거머리를 씹숙 문대며 장인님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눈 가운데서 장인님이 이상한 눈을 해가지고 한참 날 노려보더니,

“너 이 자식, 왜 또 이래 응?” / “배가 좀 아파서유!”

하고 풀 위에 슬며시 쓰러지니까 장인님은 악이 올랐다. 저도 눈에서 철병철병 독으로 올라오더니 잠은참 내 먹살을 움켜잡고 뺨을 치는 것이 아닌가——

“이 자식이, 일하더 말면 누굴 망해 줄 속셈이나? 이 대가릴 까늘 자식!”

우리 장인님은 악이 오르면 이렇게 손바릇이 아주 못됐다. 또 사위에게 이 자식 저자식 하는 이놈의 장인님은 어디 있느냐. 오죽해야 우리 동리에서 누굴 물론하고 그에게 욕을 안 먹는 사람은 몇이 켜다 한다. 조고만 아이들까지도 그를 둘러세워놓고 욕필이(본 이름이 봉필이니까) 욕필이, 하고 손가락질을 할 만지 두루 인심을 잃었다. 하나 인심을 정랄 잃었다면 욕보다 음의 매창뽕뽕 마름으로 더 잃었다.

... (중략) ...

이렇게 따져나가면 언제든지 늘 나만 밀지고 만다. 이번엔 안 된다, 하고 대뜸 구장원한테로 담판 가자고 소켓자락을 내밀었다.

“아 이 자식이, 왜 이래 어른을.”

안 간다고 뻔디고 이렇게 호령은 제법대로 하지만 장인님 제가 내 기운은 못 당한다. 막 부러먹고 딸은 안 주고 겹다 땅땅 치는 건 다 뭐야——

그러나 내 사실 참 장인님이 미워서 그런 것은 아니다.

[A] 그 전날 왜 내가 새고개 맞은 봉우리 화전발을 혼자 갖고 있지 않았느냐. 발 가생이로 돌 적마다 야릇한 꽃내가 물럭물럭 코를 찌르고 머리 위에서 벌들은 가끔 봉, 봉, 소리를 친다. 바위틈에서 샘물 소리 밖에 안 들리는 산골짜기니까 맑은 하늘의 봄빛은 이불 속같이 따스하고 꼭 꿈꾸는 것 같다. 나는 몸이 나른하고 몸살(을 아직 모르지만 병)이 나려고 그러는지 가슴이 울렁울렁하고 이랬다.

“이러이! 딸이! 맘 마 마——”

이렇게 노래를 하며 소를 부르면 어느 때 같으면 어찌가 으쓱으쓱한다. ㉠ 웬일인지 발 반도 감지 않아서 온몸의 맥이 풀리고 대꾸 짜증만 난다.

— 김유정, 『봄·봄』

9~11월 실전모의고사반 [1회 모의고사-A형-서술형14번]★

<적중포인트> ⇒ 김유정의 ‘만무방’ 제시

14. 다음은 ‘사회·문화적 상황과 작가의 개성적 표현’을 중심으로 작품을 감상하기 위해 마련한 학습 제제이다. 주요 내용을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그것은 작년 응오와 같이 지주 문전에서 타작을 하던 친구라던 물지는 앉으리라. 한 해 동안 앓을 줄이며, 출작식 모양으로 알뜰히 가꾸던 그 벼를 거둬들임은 기쁨에 틀림없었다. 꼭두새벽부터 옛, 옛, 하며 괴로움을 모른다. 그러나 캄캄하도록 털고 나서 지주에게 도지를 제하고 장리쌀을 제하고, 색초를 제하고 보니 남은 것은 등줄기를 흐르는 식은땀이 있을 따름. 그것은 슬프다. 하기도 끝없이 무고러웠다. 같이 털어 주던 동무들이 뻔히 보고 있는데 빈 지게로 덜렁거리며 집으로 돌아오는 건 진정 열작기 짝이 없는 노릇이었다. 참다 참다 못해 응오는 눈에 눈물이 흘렀던 것이다.

[A] 가뜩한데 얻지도 덜치더라고 올해는 고나마 좋작이었다. 셋바람과 비에 벼는 깨개 비들었다. 이놈을 가을하다간 벼를 게 남지 않은은 물론이요 빗도 다 못 가릴 모양. 에라, 빌어먹을 거 너를 끼리 캐다 먹든 말든 멋대로 하려다, 하고 내던져 두지 않을 수 없다. 벼를 거뤼다고 말만 나면 빗쟁이들은 우— 물러들 기니깐.

응칠이의 죄목은 여기에서도 또렷이 드러난다. 국으로 가만만 있었다면 좋은 걸 이 사품에 뛰어들어 지주의 뺨을 제법 갈긴 것이 응칠이었다.

처음에야 그럴 작정이 아니었다. 그는 여러 곳 물을 마신 이만치 어지간히 속이 뵈된 건담이었다. 지주를 만나 까놓고 씨 좋은 소리로 의논하였다. 올 농사는 반실이니 도지도 좀 감해 주는 게 어떠냐고, 그러나 지주는 암말 없이 고개를 모도 흔들었다. 정 이리되면 하여튼 일 년 품은 빼야 할 테니 나는 그 논에다 불을 지르겠수, 하여도 잠자코 응치 않는다. 지주로 보면 자기로도 그 벼는 너무나 거둬들일 수는 있다마는, 한번 벼를 잘못 해 놓으면 여는 작인까지 행실을 버릴까 염려하여 걸으로 독촉만 하고 있는 터이었다. 실상이야 고까짓 벼를 있어도 고만 없어도 고만, 그 심보를 눈치 채고 응칠이는 화를 벌컥 낸 것만은 좋으나 저도 모르게 대뜸 주먹뺨이 들어갔던 것이다.

이렇게 문제 중에 있는 버인대 귀신의 놀음 같은 변괴가 생겼다. 다시 말하면 벼가 없어졌다. 그것도 병들어 쓰러진 쪽이든 제쳐 두고 무얼로 그랬는지 알장 이삭만 따 갔다. 그 면적으로 이럼 하면 아바 못 돼도 한 댓 말 가량은 뵈는지! <중략>

한 식경쯤 지났을까, 도적은 다시 나타난다. 눈독에 머리만 내놓고 사면을 두리번거리더니 그제야 기어 나온다. 얼굴에는 눈만 내놓고 수건인지 뽕지, 형장이 가리었다. 붓짐을 등에 짊어 메고는 허리를 구둑이 뺨소리를 뽕는다.

그러자 응칠이가 날째게 달려들며,

“이 자식, 남의 벼를 훔쳐 가니!” / 하고 대포처럼 고향을 지르니 눈독으로 고대로 태굴태굴 굴러서 떨어진다. 얼굴에 호되게 놀란 모양이다.

응칠이는 덤벼들어 우선 허리끼를 내려조졌다. 아이쿠쿠, 쿠— 하고 처참한 비명이다. 이 소리에 귀가 번쩍 뛰어서 그 고개를 들고 팔부터 벗겨 보았다. 그러나 너무나 어이가 없었음인지 시선을 치절으로 그 자리에 우두말찰한다.

그것은 무서운 침묵이었다. 살뽕맞은 바람만 공중에서 복새를 논다.

한참을 신음하다 도적은 일어나더니,

“성민까지 이렇게 못살게 굴기유?”

[B] 제법 눈을 부라리며 몸을 뻗 돌린다. 그리고 느끼며 울음이 북받친다. 붓짐도 내버린 채,

“내 것 내가 먹는데 누가 뭐래?” / 하고 대뜸스러이 내뺌고는 비틀비틀 논 저쪽으로 없어진다.

형은 너무 꿈속 같아서 멍하니 섰을 뿐이다.

— 김유정, 『만무방』

<작성 방법>

○ 사회·문화적 상황을 고려하여 본문의 [A]와 [B]의 관계를 설명하고, 각각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서술할 것.

○ [B]에 나타난 현실을 미학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는 원리와 그 효과를 서술할 것.

<작성 방법>

○ ‘장인’에 대한 ‘나’의 이중적 태도를 작품에서 근거를 찾아 서술할 것.

○ ㉠의 이유를 [A]와 ‘나’의 처지를 관련지어 서술할 것.

임용닷컴고시학원

www.imyonggosi.com

	2018년 기출문제 출제영역 및 출제요소	정동해 2017년 출제 문제 모음																						
6번	[국어교육론] - 작문 작문교수학습모형+평가 -쓰기워크숍&포트폴리오 평가	- 9~11월 실전모의고사반 [1회 모의고사-A형-기입형 01번] <적중포인트> ⇒ 쓰기 워크숍 모형 제시																						
	6. (가)는 김 교사가 세운 수업 계획이고, (나)는 수업 계획에 대해 동료 교사와 나눈 대화의 일부이다. 김 교사의 쓰기 지도에 대해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5점] (가) • 학습 목표 : 주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글을 쓸 수 있다. • 쓰기 과제 : 우리 학교에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찾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글을 써 봅시다. 읽을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유형의 글을 써야하는지 친구들과 협의하여 글을 씁니다. • 평가 계획 : 포트폴리오 평가(2차) • 수업 단계 및 교수·학습 활동(90분) <table><tr><th>수업 단계</th><th colspan="2">교수·학습 활동</th></tr><tr><td>도입</td><td colspan="2">- 전시 학습 확인 및 동기 유발 - 학습 목표 확인</td></tr><tr><td>미니레슨 (간이 수업)</td><td colspan="2">- 문제 해결을 위한 글쓰기의 특성 설명하기 - 문제 상황과 해결 방안 제시하는 방법 안내하기</td></tr><tr><td>계획하기</td><td>- 쓰기 맥락 분석하기</td><td rowspan="3">교사 · 동료 · 자기 협의 하기</td></tr><tr><td>내용 생성 및 조직하기</td><td>- 해결해야 할 문제 조사하기 - 문제 해결 방안 마련하기 - 내용 조직하기</td></tr><tr><td>글쓰기</td><td>- 초고 쓰기 - 피드백 반영하여 재고 쓰기</td></tr><tr><td>공유하기</td><td colspan="2">- 완성된 글을 작은 책이나 게시물로 만들기</td></tr><tr><td>정리</td><td colspan="2">- 쓰기 워크숍 활동 정리</td></tr></table> (나) 윤 교사 : 김 선생님, 지난번 쓰기 워크숍 잘 마쳤나요? 김 교사 : 예, 잘 마치는 했는데 쓰기 워크숍이 익숙하지 않아 좀 어려웠어요. 2회 차 수업 계획인데, 한번 살펴봐 주시겠어요? 윤 교사 : 그럴게요. 그런데 처음에 쓰기 워크숍을 계획하시게 된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김 교사 : 지난여름에 교사 연수를 받기 전까지 ㉠쓰기는 필자 개인의 의미 구성 과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교사 연수를 받으면서 쓰기에 대한 제 관점이 편협했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윤 교사 : 그랬군요. 쓰기 워크숍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김 교사 : 학생들의 반응은 좋았어요. 자신이 완성한 글을 들고 뿌듯해하는 학생들을 보니 저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공유하기 단계에서 어떤 활동을 더 추가해야 할지 고민이에요. 윤 교사 : 쓰기 워크숍은 ‘실제적 쓰기’, 다른 말로 하면 ‘진정한 쓰기’를 지향하니까, ㉡공유하기 단계에서 자신이 쓴 글을 학교 신문에 투고하거나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리는 활동을 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평가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김 교사 : 지난번에 1차 포트폴리오 평가를 했고, 이번에 2차 포트폴리오 평가를 할 예정이에요. ㉢예전에는 완성된 글만을 대상으로 해서 일회적으로 평가했는데, 포트폴리오 평가를 하면서 이를 보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윤 교사 : 다행이네요. 그럼 이제 교수·학습 활동을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 (하략) ... <작성 방법> ○ ㉠과 대비되는 관점에서 쓰기 워크숍의 의미를 서술할 것. ○ 쓰기 워크숍이 ‘실제적 쓰기(authentic writing)’를 지향한다고 할 때, 김 교사가 제시한 쓰기 과제와 ㉡의 활동이 적절한 이유를 각각 서술할 것. ○ ㉢을 고려할 때 김 교사의 쓰기 워크숍 수업에서 포트폴리오 평가가 갖는 장점 2가지를 서술할 것.	수업 단계	교수·학습 활동		도입	- 전시 학습 확인 및 동기 유발 - 학습 목표 확인		미니레슨 (간이 수업)	- 문제 해결을 위한 글쓰기의 특성 설명하기 - 문제 상황과 해결 방안 제시하는 방법 안내하기		계획하기	- 쓰기 맥락 분석하기	교사 · 동료 · 자기 협의 하기	내용 생성 및 조직하기	- 해결해야 할 문제 조사하기 - 문제 해결 방안 마련하기 - 내용 조직하기	글쓰기	- 초고 쓰기 - 피드백 반영하여 재고 쓰기	공유하기	- 완성된 글을 작은 책이나 게시물로 만들기		정리	- 쓰기 워크숍 활동 정리		1. 다음을 읽고 괄호 안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쓰기 교육 방법의 유형을 쓰고, ㉠~㉢에 들어갈 구성요소를 각각 쓰시오. [2점] 수석교사 : 먼저 화면에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쓰기 교육 방법은 교사의 지도와 안내에 따라 학습자 전원이 모둠 활동 등을 통해서 실제 쓰기 수행을 중심으로 한 글쓰기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결과물로서의 글을 생산해 낼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교수·학습 과정을 말합니다. 이 () 쓰기 교육 방법은 도입부에서 교사가 설명하고 시범 보이는 쓰기 방법이나 원리에 따라서 학습자가 쓰기 전 단계, 초고 쓰기 단계, 고쳐 쓰기 단계, 편집하기 단계, 출판하기 단계 등 일련의 쓰기 과정을 통한 실제적인 쓰기 수행 경험을 통해서 결과물로서의 글을 작품화해서 생산해 내는 것에 최우선적 가치를 둡니다. 다양한 장르의 글을 교사와 동료 학습자들 간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사회적이면서도 실제적인 맥락 안에서 생산해 볼 수 있도록 해 주는 () 쓰기 교육 방법은 이제까지의 쓰기 교육이 지나치게 개별적인 쓰기 기능이나 전략 자체에만 치우쳐 오던 것과 달리 과정과 결과의 균형 잡힌 쓰기 교육과 사회적인 맥락 안에서 실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습니다. 도입 전개 정리 • 쓰기 ()의 환경 구성 • 쓰기 ()의 학습 목표 및 절차 안내 (㉠) ↓ (㉡) 계획하기 ⇌ ⇌ 조정 ↓ 초고쓰기 ⇌ ⇌ ↓ 고쳐쓰기 ⇌ ⇌ 지도 ↓ 교정하기 ⇌ ⇌ ↓ 출판하기 ⇌ ⇌ 평가
수업 단계	교수·학습 활동																							
도입	- 전시 학습 확인 및 동기 유발 - 학습 목표 확인																							
미니레슨 (간이 수업)	- 문제 해결을 위한 글쓰기의 특성 설명하기 - 문제 상황과 해결 방안 제시하는 방법 안내하기																							
계획하기	- 쓰기 맥락 분석하기	교사 · 동료 · 자기 협의 하기																						
내용 생성 및 조직하기	- 해결해야 할 문제 조사하기 - 문제 해결 방안 마련하기 - 내용 조직하기																							
글쓰기	- 초고 쓰기 - 피드백 반영하여 재고 쓰기																							
공유하기	- 완성된 글을 작은 책이나 게시물로 만들기																							
정리	- 쓰기 워크숍 활동 정리																							

정동해 2017년 출제 문제 모음

정동해 2017년 출제 문제 모음

6번

－ 9~11월 실전모의고사반 [6회 모의고사－B형－서술형03번]

<적중포인트>

⇒ 작문 워크숍 모형 제시

3. 다음은 쓰기 영역 [성취기준]에 근거하여 작성한 <수업 계획>이다. <수업 계획>에 대한 지도내용과 평가 및 보완 방안을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성취기준]

관찰, 조사, 실험한 내용을 절차와 결과가 드러나게 보고하는 글을 쓴다.

- 교수·학습 내용 - 보고하는 글을 쓰는 능력은 학교나 직업 세계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보고하는 글은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방법, 결과 등을 포함해야 하고, 제시되는 내용과 결과가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기술 방식 또한 명료하고 간결해야 한다. 보고하는 글을 지도할 때는 쓰기 윤리 지키기 등도 강조하여 지도한다.

<수업 계획>

1. 학습 목표 : 관찰, 조사, 실험한 내용을 절차와 결과가 드러나게 보고하는 글을 쓸 수 있다.
2. 교수·학습 모형 : 작문 워크숍
3. 학습 집단 구성 : 소집단
4. 교수·학습 절차
 - 1) 1단계 : 간이 수업(미니 레슨)
 - _____
 - 보고서의 목차 : _____
 - 보고서의 표현 방식 : _____
 - 보고서 쓰기의 절차 제시
 - 2) 2단계 : 협의하기
 - 주제 선정
 - 조사 방법 및 역할 분담
 - 보고서 구성 및 표현 방식
 - 3) 3단계 : 쓰기
 - 4) 4단계 : 타 교과와의 연계 활동 - 타 교과 보고서의 특성(목차, 서술 방식 등) 파악

5. 수업 시 유의 사항

- 1단계 간이 수업은 소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 산출된 자료나 글을 수집하여 개인별 자료철을 만든다.

<작성 방법>

- [성취기준]과 '교수·학습 내용'에 부합하도록 <수업 계획>의 1단계 '간이 수업'의 지도 내용을 완성할 것.
- <수업 계획>에 제시된 '작문 워크숍 구성요소', '교수·학습 절차', '수업 시 유의 사항'의 적절성 평가 및 보완 방안을 서술할 것.

－ 7~8월 문제풀이반 국어교과론 6주차 [작문] 해설지 74쪽 14번

<적중포인트>

⇒ 작문 평가 방법으로 포트폴리오법 제시

14. 다음 자료는 작문 평가 장면을 모형으로 표현한 것이다. 아래 <보기>의 괄호에 들어갈 평가 방법을 2가지 쓰시오. [2점]

The diagram illustrates the writing evaluation process across two sessions. In Session 1, the process starts with '작문 과정' (Writing Process) which includes '계획하기' (Planning), '생성' (Generation), '표현' (Expression), and '고쳐 쓰기' (Rewriting). This leads to '작문 결과' (Writing Result). The '작문 과정' is also linked to '작문 과제' (Writing Task). The '작문 결과' is linked to '작문 과제'. The '작문 결과' is then evaluated using '작문 평가' (Writing Evaluation) which includes '총체적 평가' (Overall Evaluation) and '평가' (Evaluation). The '작문 평가' is linked to '작문 과제'. The '작문 평가' is then evaluated using '작문 평가' (Writing Evaluation) which includes '총체적 평가' (Overall Evaluation) and '평가' (Evaluation). The '작문 평가' is linked to '작문 과제'. The '작문 평가' is then evaluated using '작문 평가' (Writing Evaluation) which includes '총체적 평가' (Overall Evaluation) and '평가' (Evaluation). The '작문 평가' is linked to '작문 과제'. The '작문 평가' is then evaluated using '작문 평가' (Writing Evaluation) which includes '총체적 평가' (Overall Evaluation) and '평가' (Evaluation). The '작문 평가' is linked to '작문 과제'. The '작문 평가' is then evaluated using '작문 평가' (Writing Evaluation) which includes '총체적 평가' (Overall Evaluation) and '평가' (Evaluation). The '작문 평가' is linked to '작문 과제'. The '작문 평가' is then evaluated using '작문 평가' (Writing Evaluation) which includes '총체적 평가' (Overall Evaluation) and '평가' (Evaluation). The '작문 평가' is linked to '작문 과제'. The '작문 평가' is then evaluated using '작문 평가' (Writing Evaluation) which includes '총체적 평가' (Overall Evaluation) and '평가' (Evaluation). The '작문 평가' is linked to '작문 과제'. The '작문 평가' is then evaluated using '작문 평가' (Writing Evaluation) which includes '총체적 평가' (Overall Evaluation) and '평가' (Evaluation). The '작문 평가' is linked to '작문 과제'. The '작문 평가' is then evaluated using '작문 평가' (Writing Evaluation) which includes '총체적 평가' (Overall Evaluation) and '평가' (Evaluation). The '작문 평가' is linked to '작문 과제'. The '작문 평가' is then evaluated using '작문 평가' (Writing Evaluation) which includes '총체적 평가' (Overall Evaluation) and '평가' (Evaluation). The '작문 평가' is linked to '작문 과제'. The '작문 평가' is then evaluated using '작문 평가' (Writing Evaluation) which includes '총체적 평가' (Overall Evaluation) and '평가' (Evaluation). The '작문 평가' is linked to '작문 과제'. The '작문 평가' is then evaluated using '작문 평가' (Writing Evaluation) which includes '총체적 평가' (Overall Evaluation) and '평가' (Evaluation). The '작문 평가' is linked to '작문 과제'. The '작문 평가' is then evaluated using '작문 평가' (Writing Evaluation) which includes '총체적 평가' (Overall Evaluation) and '평가' (Evaluation). The '작문 평가' is linked to '작문 과제'. The '작문 평가' is then evaluated using '작문 평가' (Writing Evaluation) which includes '총체적 평가' (Overall Evaluation) and '평가' (Evaluation). The '작문 평가' is linked to '작문 과제'. The '작문 평가' is then evaluated using '작문 평가' (Writing Evaluation) which includes '총체적 평가' (Overall Evaluation) and '평가' (Evaluation). The '작문 평가' is linked to '작문 과제'. The '작문 평가' is then evaluated using '작문 평가' (Writing Evaluation) which includes '총체적 평가' (Overall Evaluation) and '평가' (Evaluation). The '작문 평가' is linked to '작문 과제'. The '작문 평가' is then evaluated using '작문 평가' (Writing Evaluation) which includes '총체적 평가' (Overall Evaluation) and '평가' (Evaluation). The '작문 평가' is linked to '작문 과제'. The '작문 평가' is then evaluated using '작문 평가' (Writing Evaluation) which includes '총체적 평가' (Overall Evaluation) and '평가' (Evaluation). The '작문 평가' is linked to '작문 과제'. The '작문 평가' is then evaluated using '작문 평가' (Writing Evaluation) which includes '총체적 평가' (Overall Evaluation) and '평가' (Evaluation). The '작문 평가' is linked to '작문 과제'. The '작문 평가' is then evaluated using '작문 평가' (Writing Evaluation) which includes '총체적 평가' (Overall Evaluation) and '평가' (Evaluation). The '작문 평가' is linked to '작문 과제'. The '작문 평가' is then evaluated using '작문 평가' (Writing Evaluation) which includes '총체적 평가' (Overall Evaluation) and '평가' (Evaluation). The '작문 평가' is linked to '작문 과제'. The '작문 평가' is then evaluated using '작문 평가' (Writing Evaluation) which includes '총체적 평가' (Overall Evaluation) and '평가' (Evaluation). The '작문 평가' is linked to '작문 과제'. The '작문 평가' is then evaluated using '작문 평가' (Writing Evaluation) which includes '총체적 평가' (Overall Evaluation) and '평가' (Evaluation). The '작문 평가' is linked to '작문 과제'. The '작문 평가' is then evaluated using '작문 평가' (Writing Evaluation) which includes '총체적 평가' (Overall Evaluation) and '평가' (Evaluation). The '작문 평가' is linked to '작문 과제'. The '작문 평가' is then evaluated using '작문 평가' (Writing Evaluation) which includes '총체적 평가' (Overall Evaluation) and '평가' (Evaluation). The '작문 평가' is linked to '작문 과제'. The '작문 평가' is then evaluated using '작문 평가' (Writing Evaluation) which includes '총체적 평가' (Overall Evaluation) and '평가' (Evaluation). The '작문 평가' is linked to '작문 과제'. The '작문 평가' is then evaluated using '작문 평가' (Writing Evaluation) which includes '총체적 평가' (Overall Evaluation) and '평가' (Evaluation). The '작문 평가' is linked to '작문 과제'. The '작문 평가' is then evaluated using '작문 평가' (Writing Evaluation) which includes '총체적 평가' (Overall Evaluation) and '평가' (Evaluation). The '작문 평가' is linked to '작문 과제'. The '작문 평가' is then evaluated using '작문 평가' (Writing Evaluation) which includes '총체적 평가' (Overall Evaluation) and '평가' (Evaluation). The '작문 평가' is linked to '작문 과제'. The '작문 평가' is then evaluated using '작문 평가' (Writing Evaluation) which includes '총체적 평가' (Overall Evaluation) and '평가' (Evaluation). The '작문 평가' is linked to '작문 과제'. The '작문 평가' is then evaluated using '작문 평가' (Writing Evaluation) which includes '총체적 평가' (Overall Evaluation) and '평가' (Evaluation). The '작문 평가' is linked to '작문 과제'. The '작문 평가' is then evaluated using '작문 평가' (Writing Evaluation) which includes '총체적 평가' (Overall Evaluation) and '평가' (Evaluation). The '작문 평가' is linked to '작문 과제'. The '작문 평가' is then evaluated using '작문 평가' (Writing Evaluation) which includes '총체적 평가' (Overall Evaluation) and '평가' (Evaluation). The '작문 평가' is linked to '작문 과제'. The '작문 평가' is then evaluated using '작문 평가' (Writing Evaluation) which includes '총체적 평가' (Overall Evaluation) and '평가' (Evaluation). The '작문 평가' is linked to '작문 과제'. The '작문 평가' is then evaluated using '작문 평가' (Writing Evaluation) which includes '총체적 평가' (Overall Evaluation) and '평가' (Evaluation). The '작문 평가' is linked to '작문 과제'. The '작문 평가' is then evaluated using '작문 평가' (Writing Evaluation) which includes '총체적 평가' (Overall Evaluation) and '평가' (Evaluation). The '작문 평가' is linked to '작문 과제'. The '작문 평가' is then evaluated using '작문 평가' (Writing Evaluation) which includes '총체적 평가' (Overall Evaluation) and '평가' (Evaluation). The '작문 평가' is linked to '작문 과제'. The '작문 평가' is then evaluated using '작문 평가' (Writing Evaluation) which includes '총체적 평가' (Overall Evaluation) and '평가' (Evaluation). The '작문 평가' is linked to '작문 과제'. The '작문 평가' is then evaluated using '작문 평가' (Writing Evaluation) which includes '총체적 평가' (Overall Evaluation) and '평가' (Evaluation). The '작문 평가' is linked to '작문 과제'. The '작문 평가' is then evaluated using '작문 평가' (Writing Evaluation) which includes '총체적 평가' (Overall Evaluation) and '평가' (Evaluation). The '작문 평가' is linked to '작문 과제'. The '작문 평가' is then evaluated using '작문 평가' (Writing Evaluation) which includes '총체적 평가' (Overall Evaluation) and '평가' (Evaluation). The '작문 평가' is linked to '작문 과제'. The '작문 평가' is then evaluated using '작문 평가' (Writing Evaluation) which includes '총체적 평가' (Overall Evaluation) and '평가' (Evaluation). The '작문 평가' is linked to '작문 과제'. The '작문 평가' is then evaluated using '작문 평가' (Writing Evaluation) which includes '총체적 평가' (Overall Evaluation) and '평가' (Evaluation). The '작문 평가' is linked to '작문 과제'. The '작문 평가' is then evaluated using '작문 평가' (Writing Evaluation) which includes '총체적 평가' (Overall Evaluation) and '평가' (Evaluation). The '작문 평가' is linked to '작문 과제'. The '작문 평가' is then evaluated using '작문 평가' (Writing Evaluation) which includes '총체적 평가' (Overall Evaluation) and '평가' (Evaluation). The '작문 평가' is linked to '작문 과제'. The '작문 평가' is then evaluated using '작문 평가' (Writing Evaluation) which includes '총체적 평가' (Overall Evaluation) and '평가' (Evaluation). The '작문 평가' is linked to '작문 과제'. The '작문 평가' is then evaluated using '작문 평가' (Writing Evaluation) which includes '총체적 평가' (Overall Evaluation) and '평가' (Evaluation). The '작문 평가' is linked to '작문 과제'. The '작문 평가' is then evaluated using '작문 평가' (Writing Evaluation) which includes '총체적 평가' (Overall Evaluation) and '평가' (Evaluation). The '작문 평가' is linked to '작문 과제'. The '작문 평가' is then evaluated using '작문 평가' (Writing Evaluation) which includes '총체적 평가' (Overall Evaluation) and '평가' (Evaluation). The '작문 평가' is linked to '작문 과제'. The '작문 평가' is then evaluated using '작문 평가' (Writing Evaluation) which includes '총체적 평가' (Overall Evaluation) and '평가' (Evaluation). The '작문 평가' is linked to '작문 과제'. The '작문 평가' is then evaluated using '작문 평가' (Writing Evaluation) which includes '총체적 평가' (Overall Evaluation) and '평가' (Evaluation). The '작문 평가' is linked to '작문 과제'. The '작문 평가' is then evaluated using '작문 평가' (Writing Evaluation) which includes '총체적 평가' (Overall Evaluation) and '평가' (Evaluation). The '작문 평가' is linked to '작문 과제'. The '작문 평가' is then evaluated using '작문 평가' (Writing Evaluation) which includes '총체적 평가' (Overall Evaluation) and '평가' (Evaluation). The '작문 평가' is linked to '작문 과제'. The '작문 평가' is then evaluated using '작문 평가' (Writing Evaluation) which includes '총체적 평가' (Overall Evaluation) and '평가' (Evaluation). The '작문 평가' is linked to '작문 과제'. The '작문 평가' is then evaluated using '작문 평가' (Writing Evaluation) which includes '총체적 평가' (Overall Evaluation) and '평가' (Evaluation). The '작문 평가' is linked to '작문 과제'. The '작문 평가' is then evaluated using '작문 평가' (Writing Evaluation) which includes '총체적 평가' (Overall Evaluation) and '평가' (Evaluation). The '작문 평가' is linked to '작문 과제'. The '작문 평가' is then evaluated using '작문 평가' (Writing Evaluation) which includes '총체적 평가' (Overall Evaluation) and '평가' (Evaluation). The '작문 평가' is linked to '작문 과제'. The '작문 평가' is then evaluated using '작문 평가' (Writing Evaluation) which includes '총체적 평가' (Overall Evaluation) and '평가' (Evaluation). The '작문 평가' is linked to '작문 과제'. The '작문 평가' is then evaluated using '작문 평가' (Writing Evaluation) which includes '총체적 평가' (Overall Evaluation) and '평가' (Evaluation). The '작문 평가' is linked to '작문 과제'. The '작문 평가' is then evaluated using '작문 평가' (

2018년 기출문제 출제영역 및 출제요소		정동해 2017년 출제 문제 모음																																																															
7번	[문법] - 중세문법 형태 품사론 - 인칭대명사의 쓰임	- 7~8월 문제풀이반 문법 8주차 [중세국어] 15번 ★★★ <적중포인트> ⇒ 인칭대명사의 중세와 현대에서 실현양상을 비교하는 부분 적중!																																																															
7. <보기 1>은 중세 국어 인칭대명사의 쓰임을 이해하기 위해 수집한 자료이고 <보기 2>는 이에 대한 학생들의 탐구 학습 결과의 일부이다. <보기 1>과 <보기 2>를 바탕으로 높임의 여부에 따른 중세 국어 '나', '저', '즈가'의 쓰임을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5점] <보기 1> (1) ㉠ 天王하 엇더 나를 모르시느니잇고 ㉡ 一切 報施를 나미 뵈 거스디 아니헝거늘 내 마를 다 드를파 (2) ㉢ 衆生이 기운 보므로 제 켜디엿거든 聖人도 뉘마다 아니 나시느 닷 쓰디라 ㉣ 六師ㅣ 겪구오려 헝거든 제 홀 양으로 헝라 헝더이다 (3) ㉤ 부테 드르시고 즈개 阿難이 드리시고 ㉥ 地藏이 如來스기 즈갓 功德 술복사 <보기 2> <table><tr><th>인칭대명사</th><th>학생들의 탐구 결과 중 잘못된 내용</th></tr><tr><td>나</td><td>상대방을 높이지 않는 문장에서만 1인칭 대명사로 사용함.</td></tr><tr><td>저</td><td>상대방을 높이는 문장에서 자기 자신을 가리킬 때 사용함.</td></tr><tr><td>즈가</td><td>3인칭 주어 명사를 다시 가리킬 때에는 항상 사용함.</td></tr></table> <작성 방법> ○ <보기 2>의 잘못된 탐구 결과를 바로잡아 중세 국어 '나', '저', '즈가'의 쓰임을 서술할 것. ○ 중세 국어의 '저'와 '즈가'가 사용될 환경에 나타나는 현대 국어 대명사 형식 각각을 포함시켜 서술할 것.		인칭대명사	학생들의 탐구 결과 중 잘못된 내용	나	상대방을 높이지 않는 문장에서만 1인칭 대명사로 사용함.	저	상대방을 높이는 문장에서 자기 자신을 가리킬 때 사용함.	즈가	3인칭 주어 명사를 다시 가리킬 때에는 항상 사용함.	15. 아래 제시된 (가)는 중세국어의 인칭대명사 분류표이고, (나)는 현대국어의 인칭 대명사 분류표이다. <보기>에 제시된 '현대어와 다른 점'을 완성하시오. [2점] (가) 중세국어의 인칭 대명사 분류표 <table><tr><th rowspan="2"></th><th rowspan="2">1인칭</th><th rowspan="2">2인칭</th><th colspan="4">3인칭</th></tr><tr><th>정칭</th><th>미지칭</th><th>부정칭</th><th>재귀칭</th></tr><tr><td>단수</td><td>㉠ 나</td><td>너, ㉡ 그되/그되</td><td>더</td><td>누</td><td>아모</td><td>저, ㉢ 즈가</td></tr><tr><td>복수</td><td>우리</td><td>너희</td><td></td><td></td><td></td><td>저희</td></tr></table> (나) 현대국어의 인칭 대명사 분류표 <table><tr><th></th><th colspan="2">단수</th><th>복수</th></tr><tr><td rowspan="2">1인칭</td><td>예사말</td><td>나</td><td>우리</td></tr><tr><td>겸사말</td><td>저</td><td>저희</td></tr><tr><th></th><th colspan="2">단수</th><th>복수</th></tr><tr><td rowspan="2">2인칭</td><td>예사말</td><td>너</td><td>너희</td></tr><tr><td>공대말</td><td>자네,당신,그대</td><td></td></tr><tr><td rowspan="2">3인칭</td><td>근칭</td><td>중칭</td><td>원칭</td></tr><tr><td>이이, 이에, 이분</td><td>그, 그이, 그애, 그분</td><td>저이, 저애, 저분</td></tr></table> <보기> ○ ㉠ '나'의 낮춤말 (㉠)이/가 없다. 현대에는 1인칭 대명사인 '나'와 '우리'에 대한 낮춤말로 '저'와 '저희'가 있다. 즉, 15세기 국어에는 1인칭 대명사 '나'에 대한 낮춤말로 (㉠)이/가 없었고, '저희'는 (㉡)(으)로만 쓰였다. ○ ㉡의 '그되/그되'는 현대어의 '자네, 당신, 여러분의' 의미를 지닌다. ○ ㉢의 '즈가'는 현대어의 '자기'가 아니고 3인칭 '당신'의 의미를 갖는 재귀대명사이다.			1인칭	2인칭	3인칭				정칭	미지칭	부정칭	재귀칭	단수	㉠ 나	너, ㉡ 그되/그되	더	누	아모	저, ㉢ 즈가	복수	우리	너희				저희		단수		복수	1인칭	예사말	나	우리	겸사말	저	저희		단수		복수	2인칭	예사말	너	너희	공대말	자네,당신,그대		3인칭	근칭	중칭	원칭	이이, 이에, 이분	그, 그이, 그애, 그분	저이, 저애, 저분
인칭대명사	학생들의 탐구 결과 중 잘못된 내용																																																																
나	상대방을 높이지 않는 문장에서만 1인칭 대명사로 사용함.																																																																
저	상대방을 높이는 문장에서 자기 자신을 가리킬 때 사용함.																																																																
즈가	3인칭 주어 명사를 다시 가리킬 때에는 항상 사용함.																																																																
	1인칭	2인칭	3인칭																																																														
			정칭	미지칭	부정칭	재귀칭																																																											
단수	㉠ 나	너, ㉡ 그되/그되	더	누	아모	저, ㉢ 즈가																																																											
복수	우리	너희				저희																																																											
	단수		복수																																																														
1인칭	예사말	나	우리																																																														
	겸사말	저	저희																																																														
	단수		복수																																																														
2인칭	예사말	너	너희																																																														
	공대말	자네,당신,그대																																																															
3인칭	근칭	중칭	원칭																																																														
	이이, 이에, 이분	그, 그이, 그애, 그분	저이, 저애, 저분																																																														

8번

2018년 기출문제 출제영역 및 출제요소

[국어교육론] - 작문

작문전략 - 요약문(요약하기) + 화법 발표 - 청중고려하기

8. 김 교사는 요약하기 규칙을 적용하여 요약문을 만들고 이를 발표하기에 활용하는 통합 수업을 진행하였다. <보기 1>은 김 교사가 마련한 학습지이고, <보기 2>는 한 학생이 제출한 학습지의 일부이다. 김 교사의 수업과 관련하여 <작성 방법>에 따라 논술하시오.

<보기 1>

2학년 ____반 _____

※ 다음 글을 읽고 요약하기 활동을 해 보자.

화폐와 경제생활

① 화폐는 재화의 교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생겨났다. 그러나 화폐의 출현은 인간의 경제생활에 ‘가치의 축적’이라는 예기치 않은 현상을 초래했다. 즉, 화폐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가치를 축적하는 것이 쉬워진 것이다.

② 소, 돼지, 양이나 물고기, 조개 같은 것들은 일정한 시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곧 부패하여 가치가 없어지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러한 것을 아무리 많이 획득하여도 오랫동안 축적해 둘 수 없었다. 또 비교적 쉽게 부패하지 않는 쌀, 보리, 밀, 수수와 같은 것도 축적해 두기 위해서는 우선 적합한 공간이 마련되어야 했다. 그리고 공간이 아무리 넓고 커도 축적할 수 있는 총량에 한계가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적합한 공간을 마련하여 많이 축적해 둔다고 해도 그 소유자는 외부의 사람들로부터 약탈을 막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③ 수업 채취의 시대에는 그때그때 획득한 재화를 2~3일

<학습 활동>

1. 다음 표를 완성하시오.

구분	요약문	비고
①		50자 내외
②		150자 내외
③		150자 내외
④		150자 내외
⑤		50자 내외

2. 1을 바탕으로 다음 표를 완성하시오.

구분	요약문	비고
처음 ①		50자 내외
중간 ②③④		300자 내외
끝 ⑤		50자 내외

3. 2를 바탕으로 윗글의 내용을 요약하시오. (250자 내외)

4. 1~3에서 요약한 내용을 활용하여 <말하기 상황>에 알맞게 발표하여 보자.

<말하기 상황>

- 화제 : 화폐와 경제생활
- 목적 : 핵심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 청중 : 화제에 대한 관심도가 낮고 배경 지식이 부족한 학급 친구들

[10점]

<보기 2>

②

화폐가 생기기 전에는 재화를 축적하는 데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다. 육류나 어패류는 일정한 시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부패하여 가치가 없어지기 때문에 오랫동안 축적해 둘 수 없었다. 쉽게 부패하지 않는 곡물도 축적해 두려면 공간을 마련해야 하고, 총량에 한계도 있고, 약탈을 막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작성 방법> ○ 서론과 결론은 생략하고, 본론은 세 문단으로 구성하여 쓸 것. ○ 본론의 1문단은 김 교사가 요약하기활동을 학습 활동 1~3과 같이 구성한 의도를 글의 구성단위를 중심으로 서술할 것. ○ 본론의 2문단은 요약 규칙 중 ‘일반화(대지) 규칙’과 ‘재구성 규칙’에 대해 각각 설명하고, <보기 2>의 요약문에서 두 규칙이 적용된 양상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쓸 것. ○ 본론의 3문단은 학습 활동 4에서 청중 특성을 고려한 ‘도입부’의 내용 구성에 대한 지도 내용을 2가지 쓸 것.
--	--

정동해 2017년 출제 문제 모음		정동해 2017년 출제 문제 모음						
8번	－ 7~8월 문제풀이반 국어교육론 4주차 [작문] 15번 ★★ <적중포인트> ⇒ 기출문제의 <작성방법> 3번째 조건인 요약하는 글 고쳐쓰기 전략 (대치, 재구성)	－ 7~8월 문제풀이반 국어교육론 1주차 [화법] 해설지 30쪽 9번 ★★ <적중포인트> ⇒ 청중의 배경지식 확인 및 흥미 유발. 상호작용 전략						
	15. 인터넷 중고 물품 판매 사이트에 올릴 글을 친구들의 조언을 반영하여 수정하였다. 수정 후의 글에 반영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2점] [수정 전 글] • 제목: 교복 사세요 • 제품: 남학생 교복 • 내용: 이사 때문에 전학을 가게 되어서 교복을 내놓게 되었어. 구입한 지 1개월밖에 안 된 교복이야.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인 ○○ 교복에서 구입한 것인데, 디자인이 세련되어 이 바지를 입으면 다리가 엄청 길어 보여. 마치 농구 선수처럼 키가 2m는 되어 보일걸. 교복을 사는 사람한테는 체육복도 그냥 좋게. 구매 의사가 있으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해. 가격은 절충할 수 있고, 교복은 만나서 전해 줄게. 연락처○○○-○○○-○○○○ ↓ <table><tr><td rowspan="4">동 료 조 언</td><td>[조언.㉠] 예상 독자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니까 격식체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어.</td></tr><tr><td>[조언.㉡] 글을 올릴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목에 학교명을 제시하는 것이 좋겠어.</td></tr><tr><td>[조언.㉢] 독자가 궁금해할 수 있으니가 교복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겠어.</td></tr><tr><td>[조언.㉣] 독자에게 신뢰성을 주기 위해 지나치게 과장된 내용은 삭제하는 것이 좋겠어.</td></tr><tr><td></td><td>[조언.㉤] 독자의 구매 욕구를 유발하게 위해 교복을 한 벌 더 구매할 경우 좋은 점을 추가하는 것이 좋겠어.</td></tr></table> ↓ [수정 후 글] • 제목: 한국 고등학교 교복 사세요 • 제품: 남학생 교복 • 내용: 이사 때문에 전학을 가게 되어서 교복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구입한 지 1개월밖에 안 된 교복으로 아직 새것 같습니다. 사이즈는 XL이고 손상된 곳도 없고 색상도 변하지 않았으며, 교표 및 단추도 제자리에 달려 있고, 지퍼도 고장 나지 않았습니니다.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인 ○○ 교복에서 구입한 것인데, 디자인이 세련되어 바지를 입으면 다리가 엄청 길어 보입니다. 마치 농구 선수처럼 키가 2m는 되어 보일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저렴한 가격에 교복을 한 벌 더 구입하시면, 교복을 땀았을 때 마르지 않을까 봐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자주 갈아입어 깨끗한 교복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복을 사는 분께는 체육복도 그냥 드립니다.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 바랍니다. 가격은 절충할 수 있고, 교복은 직접 만나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연락처○○○-○○○-○○○○	동 료 조 언	[조언.㉠] 예상 독자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니까 격식체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어.	[조언.㉡] 글을 올릴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목에 학교명을 제시하는 것이 좋겠어.	[조언.㉢] 독자가 궁금해할 수 있으니가 교복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겠어.	[조언.㉣] 독자에게 신뢰성을 주기 위해 지나치게 과장된 내용은 삭제하는 것이 좋겠어.		[조언.㉤] 독자의 구매 욕구를 유발하게 위해 교복을 한 벌 더 구매할 경우 좋은 점을 추가하는 것이 좋겠어.
동 료 조 언	[조언.㉠] 예상 독자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니까 격식체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어.							
	[조언.㉡] 글을 올릴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목에 학교명을 제시하는 것이 좋겠어.							
	[조언.㉢] 독자가 궁금해할 수 있으니가 교복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겠어.							
	[조언.㉣] 독자에게 신뢰성을 주기 위해 지나치게 과장된 내용은 삭제하는 것이 좋겠어.							
	[조언.㉤] 독자의 구매 욕구를 유발하게 위해 교복을 한 벌 더 구매할 경우 좋은 점을 추가하는 것이 좋겠어.							